춘천 성시신문

The Chun Cheon Holy City News

발행인 : 박 상 호

2. 선거의 계절에 위를 보고…

3. 성경적 자녀교육을 말한다(대담)

6.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교회

9. 유대인의 교육을 말한다

성 시 비 전

교회갱신 · 부흥 · 복음화운동
교회연합일치운동
새로운 도시 모범시민운동
세계복음화 기도운동

www.holycity.or.kr

2006년 5월 1일

(1998년 9월 15일 창간) 제90호

5월에 잠언을 읽자

아동학대의 80%가 가정에서 일어나고 있다. 가장 안전하게 보호받아야 할 가정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아이들은 각종 폭력(방임, 신체적 학대, 성 학대, 유기 등등)으로 파괴되어져 가고 있다.

우리나라 초, 중, 고 학생들의 10명 중 3명이 정신장애(기분불안장애, 기분장애, 주의력 결핍 과잉행동장애, 적대적 반항장애, 행동장애)의 오염에 노출되어 있다고 한다.

나폴레옹이 "프랑스에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라는 질문을 받았을 때, 그는 잠시 망설이다가 분명한 어조로 "프랑스에 가장 필요한 것은 어머니입니다."라고 대답했다고 한다. 오늘날 이 시대에 가장 필요한 것은 돈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여김을 받는 가정들, 하나님의 사랑이 있고 성경 말씀을 공부하는 가정이다. 그것은 가정을 중심으로 가장 성스러운 교제와 하나 됨이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가정의 진정한 목적은 이 세상에서와 영원한 세상에서의 성품을 형성시키는데 있다. 어떤 가정은 가난하며 자기희생이 요구되고 고통을 감수해야 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가정의 목적을 충실히 수행하는 가정은 어느 곳이나 기쁨이 넘쳐흐르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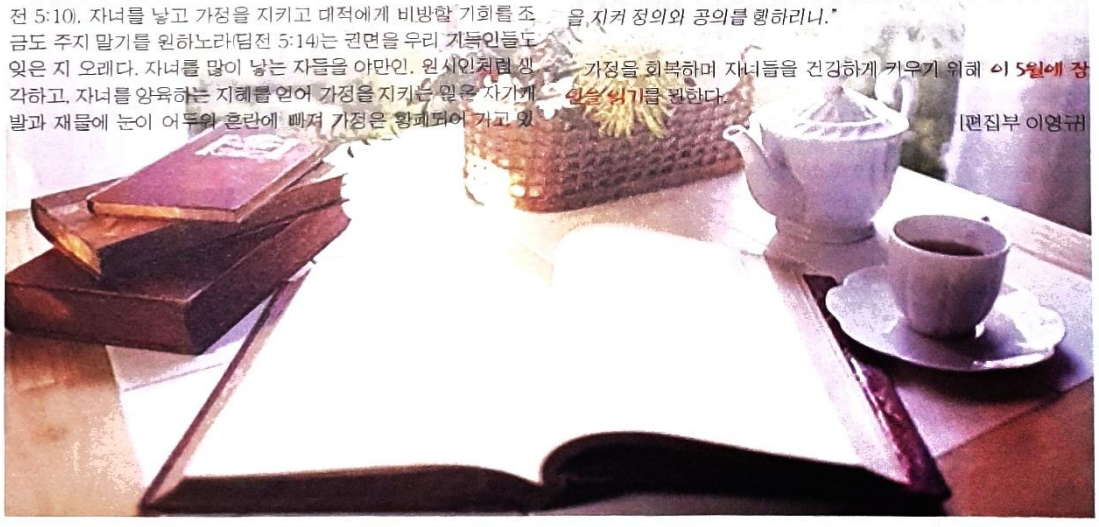
성경은 자녀를 양육하는 것이 선한 일들 중 하나라고 말한다(딤전 5:10). 자녀를 낳고 가정을 지키고 대적에게 비방할 기회를 조금도 주지 말기를 원하노라(딤전 5:14)는 권면을 우리 기독인들도 잊은 지 오래다. 자녀를 많이 낳는 자들을 야만인, 원시인처럼 생각하고, 자녀를 양육하는 지혜를 얻어 가정을 지키는 믿음 자기 발과 재물에 눈이 어두워 혼란에 빠져 가정은 황폐되어 가고 있다. 사회와 돈을 사랑함이 여인들을 사회로 내몰았다. 그러므로 가정이 파괴되는 소리가 들린다. 또한 부모들이 욕망에서 자유롭지 못함으로 사랑의 표시인 징계를 하기보단 욕망의 회를 내어 아이들은 병들어 가고 있다.

사람이 악할지라도 자녀에게 좋은 선물을 줄줄 안다. 어떤 선물을 자녀에게 주고 있나? 지혜는 루비보다 귀하니 사람이 바라는 모든 것도 그것에 비교할 수 없다(잠3:15). 이 세대의 공부! 공부! 공부! 는 사실 돈! 돈! 돈! 이라는 말과 같다. 왜곡된 그것이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한 것이다. 주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지식의 시작이며(잠1:7) 지혜의 시작(잠9:10)이다. 부모는 아이들에게 좋은 본보기가 되어야 한다. 슬픈 사실은 어떤 아버지들과 어머니들이 자녀들이 가지지 않기를 원하는 습관들을 자신들이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자신들의 습관을 포기하기보다는 아이들이 그러한 습관들을 갖도록 기꺼이 허용한다는 것이다. 부모들이여, 주님을 두려워하십시오. 당신의 자녀들이 살기를 원하는 대로 먼저 사십시오.

창세기 18:19를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신 이유가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다. *"이는 내가 그를 알기 때문이라. 그가 자기 자녀들과 자기 집 사람들에게 명령할 터인즉 그들이 주의 길을 지켜 정의와 공의를 행하리니."*

가정을 회복하며 자녀들을 건강하게 키우기 위해 이 5월에 잠언을 읽기를 원한다.

[편집부 이영규]



이달의 말씀

잠언 3장 1-2절

내 아들이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그것이 너로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세상을 보는 그리스도인

· 한일간의 문제를 위해

독도문제로 인해 불거지는 한일간의 갈등이 민족의 자존심을 거드리는 첨예한 문제로 비화되고 있다. 하나님의 손길 안에서 정치적 경제적으로 원만하게 해결될 수있도록

· 5월 31일 지방선거를 위해

바른 지도자가 세워지는 복된 기회가 되도록. 낙후되고 비전을 잃고 있는 춘천에 경제와 문화의 활력을 주고 비전이 회복되며 지역의 현안 문제들이 바르게 해결되도록. 다윗과 같은 신실한 믿음의 일군들이 세워지길.

· 외국어 고등학교의 개설을 위해

점차 부각되며 각 도시마다 일어나는 외국어 고등학교의 설립이 바른 자세를 회복하며 바르게 세워질수 있도록. 또한 이를 위한 후원회와 깊은 관심을 가진 믿음의 일군들이 함께 세워지도록.

· 강원대 음악과 강연의 밤을 위해

청소년들의 영적 부흥을 사모하며 믿음으로 펼치는 강원대 음악과 강연의 밤을 통해 버림받고 잃어버린 많은 영혼들이 주님을 만나는 감격과 함께 성령의 역사가 임하는 집회가 되도록

· 성시화 운동의 활동을 위해

①올리브힐 기도회의 활성화와 함께 올해 10주년을 맞아 준비하고 있는 축제가 은혜속에 진행되도록

②북한 선교를 위해 봉수교회를 방문하는 사역자들에게 믿음과 새힘을 부어 주시도록

③진행되는 성시아카데미를 통해 성시화의 바람이 불도록

광·속·특·권 XPEED 엑스피드

파워콤 엑스피드 깔자!

느린 속도 참지 말고 신고하여

당신의 초고속 인터넷이 느리이유, 의심해보셨나요? 이젠, 느린 인터넷 신고하고 엑스피드 광랜으로 앞서가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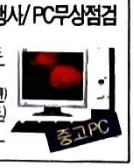
지금 Xpeed에 가입하시면 사은품을 드립니다.



사은품 1. 중고PC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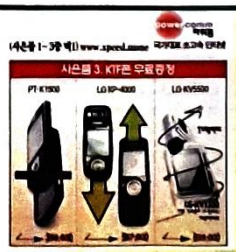
평생고객 감동행사/PC무상점검

- 바이러스/ 악성코드
- 오류발생 (알수없는 오류, 블루스크린 오류)
- 일반 소모품(랜카드)
- 윈도우 오류/ 장애



사은품 2.최고급 단일 상품





* 본행사는 대리점 자체의 행사로 진행되므로 상품이 다소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혜택
① 가입설치비 무료(자동이체 시)
② 타사 전환 특별 혜택 제공(위약금 개별상담)
③ 월 최저요금 (2만원대)

사업소개
- 정보통신공사 설계 시공 전문업체
- 무선설비 및 CCTV시설
- 광네트웍 구축 및 유지보수
- 인터넷(파워콤XPEED) 영업 대리점
- ISO9001 인증업체

가입문의 대표전화 1644-7033

회사소개

상호명 : (합)동양아이텍
대 표 : 고 광 만
전 화 : (대) 1644-7033
팩 스 : 033-257-8113
강원도 춘천시 후평1동 748
홈페이지 : http://www.gotnt.com

(합) 동양아이텍

5 · 31 지방선거에 즈음하여 3

선거의 계절에 위를 보고 머리를 들며

"이는 왕국이 주의 것이요 주께서 민족들 가운데 다스리는 자이시기 때문이로다."(시22:28)

우리의 생활은 하늘에 있는지라. 우리가 또한 하늘로부터 구주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린다(빌3:20).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믿는 우리는 장신을 차리기 위해 선거의 계절에 위를 보고 우리의 머리를 들어야 한다. 이는 우리의 구속을 기억하기 위함이다.



가톨릭의 교회법에 따르면 교회와 국가의 분리는 이단이라고 한다(교황 피오 9세는 교회와 국가를 분리하는 것은 저주받을 가르침이라고 했다). 1500년간 종교적 자유를 박탈해 온 암흑시대의 종교 괴물에서 종교적 자유를 얻은 믿음의 선배들의 유산인 종교의 자유정신이 우리의 헌법 제20조에 들어 있다. ①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 ②국교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종교와 정치는 분리된다. 이다.

이 자유를 넘어 이젠 기독교 세력을 결집하는 기독정당의 자유 상황까지 와 있다. 선거철을 맞아 염려되는 것은 이 세상의 형체가 사라져 감을 망각한 채 이 세상을 이용하는 한계를 넘어(고전 7:31) 이 세상을 정치적으로(요 14:30 이 세상의 군주) 또 영적으로(고후 4:4 이 세상의 신) 통제하고 있는 사탄에게 미혹되어 세상에 속한 일들에 빠질까 함이다.

"시대가 갈절히 원하는 지도자는 남을 섬기고 남을 세우는 지도자이다."
"종들(정당)끼리의 판단보다는 백성들에게 장애물이나 넘어지게 하는 것을 두는 불의한 자가 없는지를 판단하며, 백성들이 무엇을 근심하는지를 살피어 알아 화평케 해야 하는 자이어야 한다."

5 · 31 지방선거는 일꾼을 뽑는 중요한 행사다. 공복의 복(僕)은 '종'이라는 말이다. 나라(시)의 주인(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국(시)민의 권위를 가진 자)인 국민(시민)으로서는 '종'을 튼실한 사람으로 뽑아야 나라가 조용하고 평안하다. 그러므로 면접(선거)을 잘 봐야 한다. 애써 뽑아 놓은 종한테 배신당하지 않으려면 뒴뒴이를 반드시 체크해야 한다는 말이다. "당신이 선택한 후보를 위해 투표하는 것이 아니다. 선거는 어떤 특정인의 선호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며, 투표는 법과 하나님의 뜻에 따라 행해져야 한다."(1638년 청교도들이 플리머스에 상륙한 지 20년도 되기 전에 최초의 미국 헌법의 기본 규범들 중에서) 그게 바로 주권을 가진 국민이 튼실한 공복을 뽑기 위해 마땅히 짊어질 의무이다.

사람의 마음은 크게 세 가지 기능을 갖는다. 그것은 느낌과 생각과 뜻이다. 흔히 지정의(知情意)라고 말하는데 이 세 한자는 모두 "뜻"이라는 새김을 갖는다는 공통점이 있다. 뜻 의(意), 뜻 정(情), 뜻 지(志)입니다. '뜻'이란 하나님께 마음을 두는 것을 말한다. 즉 진리에 마음을 두어야 한다. 이웃에게 마음을 두어야 한다. 일꾼으로서의 뜻은 예수님께서도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고 자기 생명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고 하신 것처럼 국민에게 두어야 하며, 그 증거는 섬김이다. 섬김은 남을 위하여 자기 생명을 내주는 것이다. 열매로 우리는 그런 지도자를 알 수 있다. 시대가 간절히 원하는 지도자는 남을 섬기고 남을 세우는 지도자이다. 남을 희생시키고 이용함으로써 자기를 키우고 출세하는 지도자들이 있어 왔다. 섬기는 지도자는 국가의 평온과 국민의 안녕을 가져 올 수 있다.

공복(백성을 섬기는 자)은 주인 집(백성)을 위해 의와 화평과 기쁨을 일을 추구해야 한다. "정의와 공의가 주의 왕좌의 처소이며 긍휼과 진리가 주의 얼굴 앞에 나아가리이다."(시89:14)

종들(정당)끼리의 판단보다는 백성들에게 장애물이나 넘어지게 하는 것을 두는 불의한 자가 없는지를 판단하며, 백성들이 무엇을 근심하는지를 살피며 알아 화평케 해야 하는 자이어야 한다. 자기가 옳다 인정하는 그 일에는 소신이 있어 백성의 눈총을 받아도 스스로를 정죄하지 않는 행복 자 이어야 하며, 백성으로 걸려 넘어지게 하거나 실족케 하거나 약하게 하지 않는 절제하는 선함이 있어야 한다.

이런 일꾼이 어디에 있겠는가? 또한 도지사, 시장으로 나선 자들도 잘 모르는데 도의원과 시의원으로 나선 자들은 어찌 알고 뽑겠는가? 두 사람의 증거가 참되니(요8:17) 당신의 감각들을 사용하여(히5:14) 다만 우리에게 전해진 정보들로 최대공약수를 찾는 것 뿐이겠다.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중보와 감사를 드리되 왕들과 권위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정직함 중에 평온하고 화평한 생활을 영위하려 함이니라."(딤전2:1-2)는 말씀대로 이 선거라는 기회에 나라를 위해 기도라도 하자.

"…주께서 민족들 가운데 통치자시기 때문이니이다."(시22:28)
우리 민족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가 있기를…

[편집부 이영규]



춘천성시신문

편집위원 : 박 상 호 조 영 춘
최 영 조 최 상 도
정 재 호 이 영 규
권 기 찬 김 춘 배
김 미 경

원고 투고 및 광고 문의
200-091
춘천시 효자1동 373-90
춘천성시신문 앞

대표전화 : 033)256-1260
FAX : 033)257-1260
011-361-2004
010-7347-9004
010-3118-9355

Habitat for Humanity Chuncheon

해 비 타 트

- 한국사랑의 집짓기 운동 연합회 춘천지회 -

우)200-030 춘천시 요선동 9-1 TEL : 254-0009 FAX : 254-8877 E-mail : chuncheon@habitat.or.kr

소망에 마을 habitat 주택 기공식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기공식 행사 계획
1. 일시 : 2005. 5. 9(화) 오후 2시
2. 장소 : 춘천시 신북읍 천전리 162- 6 (상천초교 뒤)
3. 계획 안내 : ※1부- 예배
※2부- 시공작업시범
★행사 종료 후 귀가시 기념품 증정

자원 봉사를 모집합니다.

2006 사랑의 집짓기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전국 여러 현장에서 여러분의 도움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가족, 친구, 직장 동료들과 함께 오셔서 우리 주위의 집 없는 사람들을 위한 사랑의 땀방울을 흘려 보지 않으시겠습니까?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 모집일시 : 5월 1일 ~ 9월 30일
♣ 모집장소 : 춘천시 신북읍 천전리 162- 6번지 (상천초교 뒤)
♣ 대 상 : 각 교회, 단체, 중 · 고등학교, 대학생(만16세 이상)
♣ 모집인원 : 한국 해비타트 홈피 참조
♣ 문 의 : 춘천시지회 254-0009
♣ 신청방법 : 자원봉사자는 봉사 7일전까지 신청서 제출
♣ 기 타 : 자원봉사활동 확인서 발급

♡후원계좌 농협(예금주 한국사랑의 집짓기운동 춘천지회) 203 - 01 - 532101 계좌로 자유롭게 1구좌(3천 원 이상)을 입금하시면 됩니다.

특별대담 : 성경적 자녀교육을 말한다!

쉐마영성예덕학교 원장 이남인 목사(현, 샬롬하우스)와 아가피아 스쿨 춘천지부장 김성호 목사(현, 강촌감리교회)와의 인터뷰



조: 참된 교육을 찾아보기 힘든 이 시기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참 교육을 고민하며 실천하고 계시는 두 분을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먼저 이남인 목사님께서 쉐마영성예덕학교를 시작하시게 된 배경을 말씀해 주세요.

이남인: 저는 75년도 교회를 개척해서 95년도 병으로 쓰러질 때까지 20년을 목회했습니다. 20년 목회를 돌아보면서 제 마음에 고통스런 고민이 생겼어요. 20년 전에 만났던 착한 성도들이 20년이 지난 뒤엔 오히려 마음이 완악해진 것은 아닌가? 하는 깊은 회의가 찾아왔습니다. 왜 그런가? 고민하면서 내린 결론이 인격형성이 근본적으로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인성교육의 중요성을 깨닫고 참 교육을 찾기 위해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한때는 TV에서 방영된 논산 대건중고등학교의 교육프로그램에 매료되어 직접 교육을 받아 보고, 3개월 정도 교육을 실행해 본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은 변화하는데 장년들은 변화하지 않는 거에요. 2002년에는 세종대학교 교목으로 시무하셨던 김양환 목사님을 만나 1년 동안 목회자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해본적도 있었는데 결론이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2003년 현용수 박사를 만나서 쉐마교육에 대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많은 전문가들은 IQ는 아버지에게서 EQ는 어머니에게서 영향을 받는다고 합니다. 유대인의 자녀교육은 가정교육중심이에요 인간으로서 살아가는 모든 인격적 배움이 대부분 가정에서 이루어집니다. 2004년에는 샬롬하우스에서 30여명의 사람들이 유대인의 자녀교육에 대한 강의를 듣고 미국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을 방문해서 가정교육 현장체험을 했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실현시켜 보고자 샬롬하우스에 쉐마영성예덕학교를 설립하게 되었습니다.

정: 유대인의 가정교육 혹은 자녀교육이 어떠한 면에서 무너져가는 공교육의 대안교육으로써 자리메김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우리 나라에서는 수재인 사람이 선진사회로 가면 그 사회의 주류사회에 진출하기에는 매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국제화에도 뒤지는 경우를 자주 보게 됩니다. 저는 이 문제를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 교육이 이러한 문제점을 노출할 수밖에 없는 대부분이 학교교육 위주의 영재교육만을 실행하기 때문입니다. 그 반면에 가정에서의 종교교육과 사회에서의 인간관계 교육을 소홀히 합니다. 중요한 것은 가정에서의 가치관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하면 타인과의 원만한 인간관계도 기대할 수 없다는 점입니다. 아무리 좋은 교육을 받고 사법고시나 행정고시에 합격해도 도덕적 가치관이 결핍되고, 인간관계가 서툴다면 장기적으로 볼 때 사회에서 낙오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 자녀교육의 한국식 적용이 시급하고도 절실한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가정교육을 통해서 철저하게 자녀들을 교육합니다. 물론 교과서는 토라, 즉 구약성경 가운데 모세오경입니다. 또한 탑무드 교육을 통하여 지식교육을 받을 수 없는 인생을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그들만의 지혜교육을 시킵니다. 이것이 세계인구의 0.3%밖에 되지 않는 유대인이 노벨상의 30%를 차지하게 만드는 천재교육의 근간이 되는 것입니다.

> *"자녀는 뿌리입니다. 자녀들을 성경적 가치관으로 세워야 가정이 살고, 교회가 살고, 나라가 살아나는 것입니다."*
> *"쉐마영성예덕학교는 일상생활에서 지켜야 할 사소한 것들 그렇지만 기본적이고도 중요한 예절교육을 시킵니다."*
> *"아가피아 교육이 추구하는 비전을 한마디로 말씀드린다면 크리스천 지도자(인재)를 양성하는 것입니다."*

정: 목사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새삼 가정에서의 자녀교육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게 됩니다. 쉐마영성예덕학교에서 이루어지는 교육의 과정을 간략하게 소개해 주세요.

이: 제가 쉐마를 통해 유대인의 자녀교육을 접하면서 이를 어떻게 우리 사회, 교회, 가정에 효과적으로 접목시키고 적용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고 있어요. 자녀들을 성경적 가치관으로 세워야 가정이 살고, 교회가 살고, 나라가 살아나는 것입니다. 자녀는 뿌리입니다. 뿌리에 관심을 두고 비전을 가져야 해요. 그래서 저는 아이들을 교육하는 교사들의 훈련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투자 하려고 합니다. 쉐마영성예덕학교에서 제가 실천하는 교육을 조금만 소개해 보겠습니다. 샬롬하우스에는 청소년들이 수양회를 많이 옵니다. 수양회하는 모습을 보면 속이 상할 때가 많아요. 개회 설교를 짐깐하고, 갈 때까지 물놀이하고, 게임합니다. 귀한 시간인데 놀다가만 가면 안되겠지요. 게다가 공공장소에서의 예절을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신발이 여기저기 흩어져 있고 온통 쓰레기장입니다. 그래서 저는 샬롬하우스에 수양회를 오는 대상을 향해 오리엔테이션을 합니다. 그래서 이전에 수양회를 한 팀들의 다양한 모습을 사진으로 찍어둔 것들을 보여주면서 공공장소를 사용하는 예절(정리정돈의 중요성)과 인사의 중요성 등 일상생활에서 지켜야 할 사소한 것들 그렇지만 기본적이고도 중요한 예절교육을 시킵니다. 이러한 교육이 요즘 아이들에게 효과가 없을 것 같지요? 그런데요 정반대입니다. 아이들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바뀌어가는 아이들을 보면서 교사들이 충격을 받아요. 안되는 것이 아닙니다. 지도자가 결심하고 실천하면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교사교육에서 이것을 배우 깅조합니다. 결국 제가 내린 결론은 자녀교육의 문제는 부모의 문제라는 단순한 진리입니다.

김성호: 목사님의 말씀에 저도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아가피아 교육이 추구하는 방향이 바로 부모, 교사, 자녀가 함께 이루어가는 교육공동체입니다. 부모는 자녀에 대해서 아무런 책임도 감당안하면서 자녀교육을 교사에게 또는 학교에 떠 맡겨놓고 모든 책임을 지라는 식으로 탓만 해서는 안 됩니다.

조: 아가피아 교육이 추구하는 성경적 가정교육 혹은 자녀교육은 어떤 것인지요? 김성호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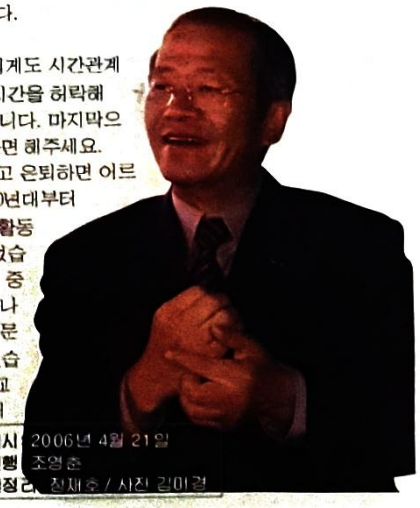
김: 먼저 제가 교육문제에 관심을 가지게 된 배경부터 말씀드리는 것이 순서일 것 같습니다. 저희 아버님께서는 목회를 하시면서도 교육을 중요시 여기셨어요 본인이 공부할 수 없는 환경에서 독학을 하셨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교회에 부임하면 꼭 교육을 병행해서 실행하시면서 "나라를 살리려면 교육을 해야 한다"고 강조하셨습니다. 그래서 덴마크 농민학교를 모델로 해서 해방 후 한국에서 처음으로 고등공민학교를 세우셨는데 이것이 사립학교들로 발전하면서 한국현대화의 밑 걸음이 되었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저는 아가피아 교육을 섬기면서 아버님께서 추구하셨던 고등공민학교의 정신을 현시대에 맞게 다시 살려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조: 김 목사님께서는 아가피아 교육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교육의 요소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요?

김: 보통 우리는 교육을 가르치는 것이라고 오해를 합니다. 그런데 교육은 가르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그러한 요소를 포함하고 있지만 더 많은 경우는 흔련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을 교육하셨는데요. 가르치는 것은 약 10%정도였고, 나머지 90%는 실생활에서 제자들을 훈련하는 기간을 많이 가지셨습니다. 교육을 가르치는 것으로 생각하게 되면 아는 것으로 끝나게 되어 있습니다. 교육은 반복함으로써 체득하게 하는 것입니다. 한국교육의 문제는 바로 훈련과 반복 그리고 실천교육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교육은 가정 안에서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어요. 자녀들을 교육하고 양육하면서 저는 좋은 습관을 형성시켜 주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시간 관리와 자기 주도 학습 등. 이것은 가정 안에서 부모만이 해 줄 수 있습니다.

정: 아기피아에서 추구하는 비전이나 구체적 교육원리, 교육프로그램을 소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김: 아가피아를 하면서 깨달은 것은 한국교회가 다시 한국사회를 주도할 수 있는 교육의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에서부터 참교육이 회복되고 실천되면서 세상 교육이 배우고 따라오도록 해야 합니다. 그것이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아가피아에게 주신 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아가피아 교육이 추구하는 바는 하나님의 비전을 품은 훌륭한 인격의 소유자인 크리스천 지도자-세상에 올바른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하나님의 인재를 양성하는 것입니다. 사회에서도 이미 많은 기관에서 탁월한 실력자들을 양성하고 있습니다만 저는 교회 안에서 인재를 양성해야 한다고 믿습니다. 이것이 아가피아 학습의 출발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아가피아 학습은 7가지 인간변화의 구성요소(체성, 감성, 지성, 관계성, 전문성, 지도성, 영성)를 기초로 하고 있어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온전한 사람의 형성을 지향하며, 끊임없는 변화를 추구하는 것입니다. 교과과정은 3단계로서 아가피아독서학습과정, 학교교과과정, 영어교과과정이 있습니다.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아가피아 과정은 매일학습(기상 · 영성 · 성찰학습), 주간학습(독서/독해 토론/논술 · 듣기 · 강의학습), 월간학습(리더쉽 · 멘토 · 찬양 · 프로젝트학습)으로 진행됩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인격과 비전, 실력을 갖춘 인재양성을 추구하는 동시에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사람, 인류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지도자를 길러내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가피아 학습은 다른 인재양성 프로그램과는 다른 점이 있어요. 영재를 데려다가 더 우수한 영재를 만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지극히 평범한 아이들을 시스템을 통해서 반복, 훈련하여 인재로 양성하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조: 더 많은 이야기가 남아 있지만 아쉽게도 시간관계상 다음 기회로 미뤄야겠습니다. 귀한 시간을 허락해 주신 두 분 목사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독자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해주세요.

이: 저는 원래 노인복지에 관심을 가지고 은퇴하면 어르신들을 섬기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80년대부터 노년학회에 참석하면서 관심을 가지고 활동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을 바꾸었습니다. 현시점에서 노인문제도 대단히 중요한 문제이고 연구해야 합니다. 그러나 무너져 가는 교육을 보면서 더 시급한 문제는 미래의 문제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미래문제의 핵심은 자녀교육이라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모쪼록 더 많은 사람들이 가정 안에서 성경적 자녀교육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일시 2006년 4월 21일
진행 조영춘
글정리 정재호 / 사진 김미경

거룩한 가정을 세우자!!

가정은 인간의 모든 집단 중에서 가장 우선적인 집단이다. 인간은 나서 죽을 때까지, 아니 죽은 후에까지 가정과 관련이 있다. 더욱이 가정은 Personality성격형성의 온상이라는 점에서 중요하다. 어린 시절을 중시하는 정신분석학에서는 어릴 때의 가정환경을 대단히 중시한다.



1) 거룩한 부모상 회복하기

자녀에게 최고의 가정환경은 부모인 것이다. 그중에서도 성장기 자녀들의 성격형성에 가장 밀접한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버지이다. 그러므로 자녀들은 아버지와의 관계 안에서 행복과 남행을 느끼게 된다. 그런 면에서 아버지를 잃어버린 사회야말로 가장 비극적인 사회라고 말할 수 있다. 오늘날 아버지들에게 있어서 가장 위험한 점은 과거의 아버지들이 가졌던 권위를 실제적으로 감지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제라도 우리는 잃어버린 아버지를 찾아나서야 한다. 전세계적으로 잃어버린 아버지를 되찾자는 부권회복운동이 일어나고 있다. 춘천에서도 부권 회복을 원하는 많은 사람들이 아버지학교로 많은 도전을 받고 있으며, 더 나아가 어머니학교도 열려서 왜곡된 어머니 상을 바르게 정립하고 어머니의 사명을 깨닫도록 돕고 있다.

세계 2,3위의 이혼율, 세계 1,2위의 자살율, 급증하는 성범죄와 노인문제 등은 흔들리고 있는 우리나라 가정의 모습들이다. 가정이 흔들리고 있다. 최초 직전의 배처럼 심하게 흔들리고 있다. 거룩한 가정, 건강한 가정을 만들기 위해 부모로서 자녀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부부사랑일 것이다. 부부가 서로 사랑과 섬김으로 예수님을 닮아간다면 자녀들은 그 지붕아래서 아름다운 미래를 꿈꾸게 될 것이다.

부부관계며 가족관계에 크고 작은어려움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을까? 그 모든 어려움과 아픔, 그리고 실패를 끌어안은 채 예수님의 손길에 이끌리어 들어갈 때 새로운 가족으로 거룩한 가족으로 변화되어 나오게 될 것이다.

2) 거룩한 자녀상 회복하기

어느 CF의 문구처럼 '사랑은 언제나 목마르다'. 누구나 사랑을 필요로 한다. 현재 충분히 사랑을 받고 있는 사람도 그렇고 충분히 받지 못하고 있는 사람도 그렇다. 이렇게 사랑은 늘 목마르다는 것을 알면서도 우리는 늘 그 부족함을 채우기 위한 발버둥을 멈추지 않는다. 그러나 사랑의 목마름은 이 세상에서는 절대로 채워지지 않는다. 그 목마름은 예수님만이 채워주실 수 있다. 부모의 사랑에 굶주렸다면 그 목마름 때문에 영원한 하나님 아버지에게로 돌아오라.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넉넉하게 목마름을 해결해 줄 것이다.

자녀들에게 요청하는 성경의 명령은 순종에 있다. 이 명령에 빗대어 잠언서는 무시무시한 경고를 하고 있다. 잠30:17 "자기 아버지를 조롱하며 자기 어머니를 업신여기는 자의 눈은 골짜기의 까마귀에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힌다" 까마귀는 썩은 고기를 먹는 조류이므로 등물이나 짐승이 죽은 현장에 제일 먼저 나타난다. 까마귀는 선천적으로 예리한 시력을 가지고 있어 먹이가 이미 죽었는지 아니면 죽은 척 하는지를 분간하는데, 먼저 먹이가 죽었는지 눈을 쪼아 보아서 분별해낸다. 이때 먹이가 자기 눈을 보호하려 들지 않으면 틀림없다. 독수리는 까마귀보다 더 크고 힘이 센 새로서 까마귀가 일단 먼저 맛보고 남은 것을 먹어 치운다.

이와 같은 자연계의 법칙을 는여겨본다면 잠언 30:17의 말씀을 경각심을 가지고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다. 자녀가 부모의 권위를 비웃거나 거역하면 이는 영적으로 죽었다는 증거이다. 까마귀처럼 악한 마귀 떼는 반항하는 자녀들의 눈을 보고서 그들이 영적으로 죽었는지를 안다. 고르 "눈은 몸의 등불이다" 마6:22). 권위에 반항하면 파멸을 초래하는 유혹에 빠지고 작은 까마귀가 우선 침범한 후에 독수리가 달려든다. 부모를 공경하되 순종함으로 공경하라. 이것이 자녀들이 영적으로 살아있다는 증거이다.

부모가 영적인 지도자가 되지 못하면 하나님의 심판이 온다. 거룩한 부모는 사랑과 심김으로 모범을 보이며, 거룩한 자녀는 순종으로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건강한 가정 거룩한 가정의 모습이다. 5월에 가정의 거룩한 형상을 회복하자.

[편집부 최영조]

사랑과 섬김으로~~ 좋은 부모되기....

공경과 순종으로~ 좋은 자녀되기....

♠ 좋은 부모되기 십계명

1계명. 행동으로 본보기가 되어라
생각하는 부모가 되자/ 유전자보다 더 중요한 것은 부모다/ 아이는 보면서 배운다/ 가정 밖의 영향 다루기

2계명. 사랑은 넘치게주어라
사랑이 자녀를 망칠 수 있는가/ 신체적으로 애정을 표현하기

3계명. 아이의 삶에 참여 하라
자녀의 관심사에 관심을 기져라/ 학교생활에 참여하라/ 간섭하지 말라

4계명. 아이의 눈높이에 맞춰라
아이의 발달에 보조를 맞춰라/ 아이의 기질에 맞게 양육하라/ 당신의 아이는 특별하다/ 발달의 전환기에는 인내심을 가져라

5계명. 지켜 야 할 규칙을 정하라
모든 아이는 규칙과 한계가 필요하다/ 단호하되 공정하라/ 옳다는 것을 알면 단호하라/ 아이가 성장하면 한계를 넓혀라

6계명. 나이에 맞는 독립성을 키워라
자녀의 자율성 욕구/ 반항과 논쟁 처리하기/ 아이에게 심리적 공간을 주어라/ 아이의 생활을너무 세세하게 관리하지말라

7계명. 말과 행동의 일관성을 유지하라
규칙적인 일과의 중요성/ 일관되이되 경직되지 말라

8계명. 절대로 때리지말라
절대로 신체적인 처벌을 하지 말라/ 언어적 학대를 하지 말라/ 분노를 조절하라/ 벌을 주는 올바른 방법

9계명. 부모의 규칙 과결정을 설명하라
기대하는 바를 명확히 하라/ 자녀에게 이유를 설명하라/ 자녀의 의견을 들어라/ 실수를 인정하라

10계명. 아이도 인격체임을 잊지 말라
존중하고 존중받기/ 쌍방향으로 대화하라

♠ 좋은 자녀되기 십계명

1계명. 공경하고, 존중하라
부모를 같은 인간으로서 이해하고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공경과 존중을 비쳐야 한다.

2계명. 웃어라
자주 웃고, 언제나 즐거운 모습을 보여드리자.

3계명. 사소한것에 신경 써라
우리의 부모들도 무적의 마징가 Z가 아니다. 부모들도 사람이고, 자식들의 사소한 무관심에 쉽게 상처 입을 때가 많다.

4계명. "그것도 모르세요?" 절대적인 금기의 말
우리도 모르는 사이 부모님께 상처를 입히는 가장 흔한 경우가 바로 '그것도 모르냐'라며 무시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이다.

5계명. 신뢰 하라
부모님은 세상에 단 하나뿐인 여러분의 부모이다. 세상이 모두 적으로 돌아서더라도 부모님 만큼은 끝까지 당신 곁을 지켜주실 것이다.

6계명. '자주', '작게' 보답 하라
기념일만을 챙기는 것이 아니라 평소에 작은 꽃 한 송이, 따뜻한 커피 한 잔 등으로 작고 사소한 보답을 계속해 나가자.

7계명. 성장 하라
부모님은 자신들의 자식이 커가면서 점점 여러 가지를 배우고 성장해나가는 것을 보고 흐뭇함을 느낀다.

8계명. 납득 하고 수긍 하라
부모님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고 그게 타당하다면 수긍하자. 만약 조치가 부당하다고 생각되어도 한 번쯤 양보해 보자.

9계명. 대화 하라
대화는 허면 할수록 늘고, 하지 않으면 하지 않을수록 줄어든다.

10계명. 사랑 하라
위에 9가지를 모두 실천해야 하는 주제이다. 입으로 들어내는 사랑이 아닌 몸소 실천하는 사랑을 보여주자.

erom 이롬청신동충하초

이롬청신 동충하초는 100% 밀리타리스 동충하초를 사용, 박하 계피 대추 감초 비타민 및 라이코펜이 함유된 토마토추출물 등을 함유하여 더욱 진하고 풍부합니다.

※ 목소리를 위해 태어났습니다.



▶복용대상
- 목을 많이 쓰시는 목사님, 찬양사역자, 선생님, 강사 등
- 기관지가 약하신 분
- 천식으로 고생하시는 분
- 잦은 가래, 기침으로 고생하시는 분

좋은성수생식 직사점에서는 항상 좋은 가격을 유지합니다. 아이마트 사거리 LG전자 2층

대표 서 지 현 권사(시온성결교회)

033)261-2002 / 019-350-5115 팩스 261-2333

웰빙시대의 으뜸 브랜드 어굼터 생선구이전문점

생선에도 명품이 있습니다.

www.eogumter.co.kr



魚굼터의 특색

1 魚굼터 생선은 신선합니다.
청정수역에서 잡은 신선한 생선만 취급합니다.

2 魚굼터 생선구이는 저가격 고급요리입니다.
저렴한 가격으로 고급생선 요리를 즐기실수 있습니다.

3 魚굼터 메로는 신어(新魚)입니다.
처음느끼는 독특한 맛은 건강과 입맛에 기름을 드립니다.

4 세련된 분위기와 정성어린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고급인데 리어와 정갈한 음식으로 편안한 분위기 연출

어굼터 춘천/온의점 이 임 숙 예약문의 033) 252-7889

가나안 인도와 춘천

인도의 비하르에 가나안 농군학교 설립을 위해서 올해 1차 방문여행을 2월 24일부터 28일까지, 2차는 3월 24일부터 30일까지 두 번에 걸쳐 인도를 다녀왔다.

이번 방문에는 3회의 압둘깔람 인도대통령과의 만남이 있었고, 비하르주의 주수상과의 2번에 걸친 협의와 주지사 방문 등이 이어졌다.

이 방문을 통해 이뤄진 놀라운 사건들을 뒤돌아보며 어떤 마음과 비전을 가지고 인도 전역에 하나님의 나라 건설을 이뤄나갈 것인가를 살펴보는 시간이 되고자 한다.

이 글을 쓰면서 먼저 인도의 비하르 개발을 위해 앞서 수고한 춘천에 계신 많은 분들의 역할에 대해 간략하게 소개하려고 한다.

춘천을 중심으로 한 비하르선교협의회(회장:김종호목사 효자교회)가 약 20여 개의 교회와 다양한 전문가들이 협의체를 이루며 역동적인 활동을 펼치고 있다. 비선협은 현지의 약 10여명의 그룹들을 도와 문벵퇴치학교와 여성자조그룹 쓰레기처리운동과 장애인복지사업 등과 함께 성경연구학교와 지역교회 설립 등에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며 헌신적인 수고로 인해 많은 성과를 이루고 있다. 이번 2월에도 약 30여명이 건축과 사역지원, 현주민 격려를 위해 다녀오기도 했다.



농군학교 설립을 위한 1차 여행에는 농군학교의 김범일 교장님과 함께 춘천사회단체협의회장이며 기독교연합회장인 박상호 목사님, 강대산림과학대 전학장인 황병호교수님과 함께 하였다. 2차 방문에는 연세대학교원주캠퍼스의 기획처장인 권명중교수님이 동행하여 대통령에게 인도개발 뿌라 계획 속에 한국의 가나안 농군학교의 역할 등에 대해 프로젝트로 설명했다.



이번 2차 방문 때는 대통령을 접견뿐만이 아니라 주 수상과 주지사와의 의미 있는 만남을 가졌으며, 인도사회과학연구소의 방문과 해외협력평의회와 A.N대학에서의 세미나 발표 등 아주 진지하고 깊이 있는 대담과 논의들이 오고 갔다.

특히 3월 28일 대통령의 비하르 방문 상하양원 국회의원 연설에선 김범일 장로님과의 만남과 권명중교수의 프로젝트발표를 많은 시간 할애해주었다. 특히 대통령은 연설을 통해 인도의 2020비전인 경제문화개발의 분명한 청사진을 제시하며 이 비전을 이뤄 나가는 일에 한국민의 역할에 대하여서 깊이 긍정적으로 말하였는데, 이는 굉장히 큰 사항이며 관심을 두고 주시해야 할 부분이라고 본다.

이제 경제 개발을 향해 눈을 뜨고 있는 인도와 중국을 전 다아라 일컬어 특별한 경제적인 변화가 일어날 것을 모든 세계인이 주목하고 있다. 지금 인도의 일인당 GNP는 약 800달러 정도 비하르주는 더 열악해서 약 100달러 정도뿐에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인도는 세계 수출입 교역국의 12위로서 한국다음으로 활성화 되고 있는 나라이기도 하다. 이 인도가 경제에 눈을 뜨고 변화가 일어나고 있음은 누구나 감지할 수 있으며, 현지를 다녀온 후 그 개발이 지금 놀랍게 이뤄지고 있음을 더 깊이 확신할 수 있었다.

몇 가지 경제개발 가능성을 확신할 수 있었던 사안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1. 백성들의 절대적인 존경을 받는 지도자 대통령이 경제문화개발에 대한 확실하고 실현성 높은 강력한 비전을 제시하고 있으며 백성들이 이를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있음을 주시할 수 있었다.
2. 풀뿌리 민주주의의 정착 및 발전을 통해 사회의 구조 등 경제발전을 위한 여건들이 더 많이 열려가고 있음을 볼 수 있었다.
3. 언어가 영어권이기 때문에 이미 많은 영역이 세계화가 되어 있어서 경제개발의 중요한 장애 문제가 제거 되어 동력 가능성이 준비되어 있었다.
4. 인건비 등이 아주 저렴하고 교육환경 구조가 잘되어 있으며 국민성은 천성적으로 부지런하면서도 친절하며 낙천적인 성품을 소유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5. 중국과 말레이시아, 태국 등 주변국의 발전성장으로 인해 개발 욕구지수가 아주 높았다.

특히 인도의 대통령이신 압둘깔람은 해외파가 아닌 국내 학자로서 핵을 개발하고 미사일을 개발하는 등 최고의 과학자일 뿐만 아니라 독신으로 나라를 위해 헌신하며 백성들의 절대적인 지지를 바탕으로 하여 경제개발에 대한 강력한 비전을 품고 이를 장기적 프로젝트로 실천에 옮기며 국내외의 주목을 받고 있었다.

그러나 저변에는 아직까지 변화되지 않으려는 기존의 전통주의와 민족주의 등이 암초처럼 숨겨져 있고, 계급사회로 인한 경직성 다양한 인도전통의 종교들로 인해 개발이 저해되고 있기도 했다. 상위 부자들과 하위 가난한 사람들의 격차가 너무 심해 심지어 5%의 부자들이 95%의 재산을 소유하고 있는 등 개선될 많은 문제들이 산재되어 있기도 했다.

이에 대통령은 비슷한 환경과 사회 여건 속에서도 많은 문제들을 극복하면서 경제적인 개발을 이룬 한국의 정신개발 프로젝트였던 '새마을 운동'의 성공을 주목하게 되었다고 본다.

이번 방문에 대통령과의 만남은 단순히 가나안 운동의 비하르 주 개발을 위한 작은 움직임만이 아닌 한국 가나안 운동의 협력을 통한 인도개발의 새로운 경제개발 뉴모델을 만들어 가려는 대통령의 의지를 확인할 수 있었던 좋은 계기가 되었다.

그러므로 이런 제반 사항들을 바탕으로 하여 대통령의 경제발전을 위한 자문기관이 만들어지면서 한국의 경제인들과 학자들이 대거 참여하여 인도 개발을 위한 프로젝트를 다양한 방향에서 지원할 수 있게 되었고, 한국 사회 개발의 모델을 제시하며 사회저변에 깔려 있는 여러 문제를 심층적으로 연구하며 바른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었다. 그리고 가나안 농군학교의 개설로 인한 경제 공동체를 형성하여 국민의식의 변화와 함께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국민들에게 심어줄 수 있고, 이를 통한 바른 경제개발 모델의 제시와 사회개발에 적극적으로 참여 할 수 있게 되는 등의 길들이 열게 될 것이다고 본다.

우리는 이제 인도가 가나안과 같은 젖과 꿀이 흐르는 하나님의 축복된 역사로 거듭나며 새롭게 일어나는 모습을 보게 될 것이다. 이를 위해 한마음으로 기도하길 소망해 본다.

[글 성시본부 지무총장 조영천]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교회

의미 있는 교회탐방순서로 벧엘감리교회(김종훈 목사)편입니다



벧엘교회는 1974년 7월 17일(제헌절)에 창립된 교회로 '생명을 다해 예배하는 교회, 목숨을 걸고 기도하는 교회, 찾아가서 영혼을 구원하는 교회'를 모토로 자라온 아름다운 교회이다. 1987년 김종훈 목사의 부임 이래 시류(時流)에 야합하기보다는 묵묵히 시대적 사명을 감당하여온 벧엘교회의 그 놀라운 이야기들을 함께 들어보자.

교회의 시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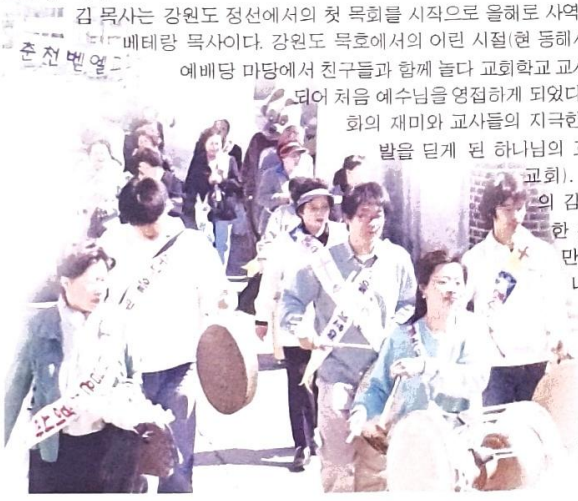
벧엘교회는 어느 한 사람 전임 목회자의 교회 개척으로 시작된 교회가 아니라 평신도들의 헌신에 의해 시작된 의미 있는 교회로 잘 알려져 있다. 권일선 장로와 그 가족들이 자기 집을 팔아서 주님께 드림으로 이 아름다운 교회가 시작되었다 한다. 그 당시 신축된 벧엘교회 예배당은 규모 면에서 춘천에서 두 번째로 손꼽히는 큰 교회였다. 그러나 지금과는 달리 낙후된 강북 지역의 정서 탓에 목회자들마다 양 무리들의 마음을 붙잡는데 큰 어려움이 있었다고 김 목사는 회상한다. 살림이 넉넉해지면 시내지역으로 이사하고자 하는 갈망이 이 지역 주민들 누구에게나 있었던 시절, 성도들과 동거동락을 하며 지역교회의 목회적 비전을 함께 나눈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다. 그래도 벧엘교회가 여기까지 나아온 데는 성령님의 도우심과 기둥과 같은 등역자 몇 분이 있었기 때문이리라.

교회의 산증인이라면 현 시무장로로 섬기고 있는 김진형 장로이다. 교회 개척 초기, 명진학교 교사로 오셨다가 정착한 케이스. 기도와 예배를 생명으로 생각하시며,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새벽기도에 빠진 적이 없는 것 같다고 김종훈 목사는 회상한다. 김진형 장로는 지금까지 30여년 이상을 묵묵히 교회를 지켜 오시는 벧엘교회의 기둥과 같은 분이시다.

교회의 차량 담당으로 섬겨 오시는 김영찬 장로도 자랑거리다. 김 장로는 지난 20여년간 교회의 차량을 무보수로 섬겨오셨을 뿐만 아니라 교회의 대소사에 이름 없이 봉사하는 귀한 분이시다. 또한 교회학교 교사와 성가대 교사로 일평생을 드려 오신 이미자 집사 또한 하나님의 자랑스런 사람으로 추천하기를 마다하지 않는 김 목사.

김종훈 목사

김 목사는 강원도 정선에서의 첫 목회를 시작으로 올해로 사역 30년을 맞는 베테랑 목사이다. 강원도 묵호에서의 이른 시절(현 동해시), 동네 교회 예배당 마당에서 친구들과 함께 놀다 교회학교 교사들에게 인도되어 처음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다 한다. 성경동화의 재미와 교사들의 지극한 사랑으로 첫 발을 딛게 된 하나님의 교회(묵호감리교회). 이것이 오늘의 김 목사를 있게 한 것이다. 하지만 정작 그가 하나님 앞에서 신앙적 결단을 하게 된 것은 보다 시간이 흐른 뒤인 25살의 청년시절. 영화 '퀴바디스'를 관람하고 나서였다고 고백한다. 그리고 이어진 김홍도 목사의 부흥회에서 청년 김종훈은 인생에 있어서의 BC와 AD의 체험을 하게 되었다. 이때 청년 김종훈은 주님 앞에서 자신의 남은 생애를 드리겠다고 결심한다. 신학을 공부하고 나서 첫 목회지는 정선지역이었다. 선평감리교회를 개척하여 4년을 심겼다. 면 소재지도 아닌 리 소재지 교회에서 60여명의 성도들이 출석하였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다. 불과 4년여 기간의 정선 목회에서 제자 중 3명의 목회자가 나왔다는 자랑 아닌 기쁨과 감사가 김 목사의 간증에서 배어 나온다. 그리고 충청도 논산에서의 6년 목회. 돌이켜 보면 모든 과정은 주의 은혜요 주님의 섭리였다. 벧엘교회의 역사 속에 5번째 목회자로 부임하고 나서 이때부터 벧엘교회는 안정과 성장을 거듭하게 된다.



교회의 성장

벧엘교회가 새로 교회를 신축하고 이곳에 자리 매김을 한 것은 지난 2001년. 소양강의 주류와 인접한 탓에 매년 반복되는 교회의 침수가 큰 과제였다. 1974년 교회개척 이후로 큰 물난리만 3-4차례 경험했다. 물이 허리까지 침수되기도 한 어느 여름 장마에도 교우들은 하나님을 원망하기보다는 기도로 주님의 뜻을 물었다고 한다. 그 이후 교우들은 한 마음으로 교회 이전을 결정한다. 춘천시의 이전 보상금을 종자돈으로 시작된 교회이전. 교회 이전 결정의 기쁨도 잠시, 사단의 공격은 거세였다. 뜻하지 않은 IMF를 만나 교회공사가 일시 중단되고 성도들도 탈진하는 아픔을 겪게 된다. 이때만큼 필사적으로 기도한 적이 없었다고 김 목사는 회상한다. 사단의 공격에 지지 않기 위해 하루 2-3시간을 기도의 무릎을 꿇는 시간으로 드렸던 김 목사. 그러나 더 많이 기도하지 못한 것에 아쉬움을 말한다. 이 때문에 지금도 김 목사는 길에서라도 교회를 신축하거나 증축하는 교회들을 보면 물질로 동참하지는 못하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의 증보기도로 등역한다고 고백한다. 연단도 있었지만 교회 신축을 통해 하나님의 많은 축복을 경험했다고. 김 목사는 교회가 강해지는 것이야말로 하나님 나라의 튼튼한 교두보를 세우는 일이요 마귀가 가장 두려워하는 일이라고 힘주어 말한다.

비전과 동역자들

김 목사의 평생 모토는 마태복음6장 33절이라고 소개한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마6:33) 그에게 있어서는 게 교회는 그다지 중요하지 않다. 오직 하나의 하나님 나라만이 중요할 뿐이다. 예수님은 이 지상에 한 나라, 한 교회만을 세우셨기 때문이다. 그래서 김 목사는 교파와 교회를 초월하여 연합하는 통큰(?)목사로 알려져 있다. 벧엘교회 주변에는 500미터 안에 12개의 교회가 있다고 한다. 그러나 각 교회와의 관계를 경쟁 관계가 아닌 등역자 관계로 믿으며, 연합하고 협력하기에 힘쓰는 김 목사. 이러한 목회 철학 덕택에 많은 후배들이 따르고 존경하는 것은 당연한 일일게다.

김 목사의 원만하고 풍성한 사역에 그림자같이 동행하는 사람은 조혜선 사모이다. 조 사모는 전형적인 아브라함의 여인 사라처럼 성도들의 어머니요, 김 목사의 주된 조력자로 우뚝 서 있다. 지난 1995년 뇌종양으로 큰 수술을 하는 시련도 있었지만 믿음과 신유의 능력으로 깨끗하게 치유함을 받았다.

최근 목사안수를 받은 강근수 목사는 직접적으로 김 목사를 돕는 큰 동역자이다. 그가 섬기는 어린이 공부방 사역도 벧엘교회 사역을 풍성하게 하는데 한 몫을 단단히 차지한다. 이 밖에 이귀현 이승교 이영환 박노정 최일용 장로 등 큰 일군들이 있어 행복한 김 목사. 이로 말미암아 벧엘교회는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을 받는 교회가 되리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

[취재 최상도, 사진 김미경]



경원대태권도체육관 수련생모집

세계태권도선교회 할렐루야시범단춘천지회 시범단원 모집

1. 경원대학교 태권도학과 호신술 지도교수인 관장님이 직접지도.
2. 태권도를 통한 스포츠선교의 경험(방학을 이용한 태권도단기선교).

"Be sure to start whit God"

관장 정 대 교 (갈릴리감리교회)

※부설(음악 줄넘기 교실 · 다이어트 교실)
※경원대 유아스포츠단 모집(5~7세)
※여호수아 워십 선교단원 모집(문의:017-374-2440)

교육문의: 263-6022, 011-9791-6055 위치: 석사동 767-5 우석초등학교 정문 옆

부활의 영광과 기쁨을 춘천시민과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기독교 대한성결교회 시온교회

담임목사 오생락

2006년 표어 Vision2011, 그 특별한 여행을 위한 새로운 출발

■ 4월의 주요행사 ■

1. 글로리아 바디워십 선교단 공연 - 16일(부활절) 오전9:00, 오전11:00
2. 주나임교회와 함께하는 장애인주일 연합예배 - 23일(주일) 오전11:00
3. 찬양사역자 손재석과 함께하는 파워 워십(찬양집회) - 23일(주일) 오후3:00

(특별출연:D-DAY, 최미경)

예배시간: 주일1부/오전7:30, 2부/오전9:00, 3부/오전11:00, 오후예배/오후2:00 수요예배/ 오후7:30, 유치부/ 주일 오전11:00, 이동부/ 주일 오전9:00 청소년부/토 오후5:00, 청년부/토 오후7:30

☎262-8534, 262-8537 춘천시 석사동 802-3번지 (아이마트 맞은편)

소개합니다

예수제자운동(JDM)

1. 역사와 정신과 신학적 입장

예수제자운동(JDM)은 1977년 주님을 사랑하는 젊은이들이 전 생애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기로 작정하고 성경공부로 모이며 깊은 교제를 나누던 중에 주님께서 "만인을 그리스도의 제자로 삼으라(마28:19)"는 비전을 주심으로 이를 위하여 모인 작은 무리들의 모임이다.

예수제자운동(JDM)은 그리스도를 모르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함으로 새 생명을 주고(롬6:4), 그리스도인들에게 말씀과 교제를 통하여 사도행전에 나타난 초대 성도들의 성령 충만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인도하고(행2:4), 그들에게 비전을 제시함으로 그 인생이 주님의 사역에 헌신될 수 있도록(마6:30) 훈련하고 있다.

예수제자운동(JDM)의 신조는 개혁주의적 입장에서 성경을 정확무오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으며, 성경적 교리들을 지지하며, 만인을 그리스도의 제자로 삼기 위해 하나님의 뜻과 말씀의 원리를 따라 행동하는 복음주의 선교단체이다.



2. 예수제자운동의 목표와 강령과 특질

1) 목표 : 만인을 그리스도의 제자로 삼자(마28:19).
2) 강령 : 복음전파(Evangelism), 제자훈련(Discipleship), 세계선교(World Mission)
3) 특질 : 가족공동체, 제자훈련 성경적인 삶

3. 예수제자운동의 외적모습

1. 청년운동 (전12:1, 딤후2:22)
2. 평신도운동 (벧전2:9, 행8:1)
3. 제자운동 (마28:19, 딤후2:2)
4. 선교운동 (행1:8, 막16:15)

4. 예수제자운동의 내적모습

1. 말씀의 모임
2. 기도의 모임
3. 사랑의 모임
4. 전도의 모임

5. 춘천지구 모임 안내

강원대, 한림대, 춘천교육대, 한림 성심대 4개 대학과 직장모임이 구성되어 있다. 사역자는 전임간사 4명에 협동 2명이 사역 중이다. 각 대학별로 캠퍼스에서 매주 목요일에 채플이 있고, 일주일에 한 번씩 소그룹 성경공부, 매일 아침과 저녁으로 큐티모임과 기도모임이 있다. 직장인들은 목요일에 전체 모임과 일주일에 한 번씩 각 소그룹별로 모임이 있다. 훈련프로그램으로는 디모데 훈련학교(TTS)과정이 3학기 과정과 리더 훈련과정 그리고 한국제자훈련원(KDTI) 과정(9개월)이 있다.

[글 구영록 간사/ 문의: 강원대 019-607-6260 차경원 간사 / 한림대 016-9209-0930 김은하 간사 / 춘천교대 019-369-9925 홍혜경 간사 / 한림 성심대 011-9058-3192 구영록 간사 /직장모임 019-9220-6018 류광선 간사 / 사무실 252-3192]

영혼의 양식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 잠 22:6



전 영 진 목사(어린이전도협회 춘천지회 대표)

여호수아 24장 31절과 사사기 2장 10절에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에 대한 배반과 그에 따른 심판의 고통이 반복되는 가슴 아픈 상황이 어디서부터 비롯되었는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광야에서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을 맛보았던 부모의 세대는 다 죽고 요단강 건거 가나안에서 태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습니다. 그 결과 이방 민족에게 하나님의 영광과 권위를 드러내어야 할 이스라엘 백성이 오히려 주변 민족이 음란하게 섬기는 우상을 덩달아 섬기다가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조금 정신 차리는 듯 싶다가도 어느새 이방 민족의 우상 앞에 달려가 전에 보다 더 심한 악을 행하는 삶을 반복하는 불행한 민족으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무엇이 이들을 이렇게 만들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했던 부모의 세대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마땅히 행할 길을 자녀들에게 가르치지 않은 까닭입니다. 그렇다면 어린이들이 마땅히 행해야 할 길은 무엇입니까?

첫째로,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가르쳐야 합니다.

이것은 글자를 가르치고, 피아노 미술 태권도를 가르치며, 산수와 영어를 가르치는 것보다 최우선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의 태도는 에배를 통해서 가르칠 수 있습니다. 가장 영향력 있게 하나님 경외하는 삶을 가르치는 에배는 가정 에배입니다. 성경의 위대한 인물들과 역사의 위대한 인물들은 모두 어려서부터 부모에게서 하나님 경외하기를 배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인격이 되었고 하나님의 비전이 그들의 비전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려서부터 하나님께 에베드리며 하나님 중심의 가치관으로 무장된 이들을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귀하게 사용하였습니다.

둘째로, 자기 자신과 이웃을 사랑하도록 가르쳐야 합니다.

주님께서는 이웃 사랑보다 앞서 자기 자신의 사랑이라 하셨습니다. 어린이들에게 자신을 사랑하도록 가르쳐야 합니다. 자신을 사랑하기에 자신의 몸과 마음을 건강하고 아름답고 소중하고 순결하며 가치 있게 가꾸도록 가르쳐야 합니다. 인터넷 음란물과 같은 전히 몸을 이롭게 하지 않는 비루한 것들에게서 다니엘처럼 자신을 지키도록 가르쳐야 합니다. 또한 이웃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법을 가르쳐야 합니다. 어려운 이웃에게 나누어 주는 섬기는 손길이 되도록 지도해야 합니다. 더 나가서 복음을 몰라 죽어있는 영혼들을 향해 주님의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 자신을 드리는 선교적 삶을 살도록 지도해야 합니다.

어린이의 삶은 마치 털 굳은 진흙과 같습니다. 지금 아직 털 굳어 있을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양으로 빚어야 합니다. 이미 굳어진 진흙은 변화시키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어린이는 본대로 들은 대로 배운 대로 행합니다. 어린이들이 삶의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두도록 제대로 철저하게 가르쳤을 때, 가정과 교회와 이 나라의 미래에는 소망이 있습니다.

아무쪼록 어린이날과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우리의 자녀들에게 마땅히 행할 하나님의 길을 가르쳐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 나라의 귀한 일꾼으로서 성숙하게 드려지게 되는 은혜가 각 가정과 학교와 교회 위에 임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앤투어 ntours
● 할인 항공권 전문
● 전세계 호텔 예약
● 여권 및 비자 업무
● 국내 · 외 여행 알선 (수학 · 졸업 여행)
● 배낭여행 · 어학연수
● 전세 버스 알선
● 신혼여행
● 유로패스/JR패스 예약 및 발권
● 해외선교 후원
대표 김 지 현 집사(춘천동부 교회) 011-9057-3946
TEL:244-7400 도청 밑에 위치

SSO TOTAL DESIGN
쏘인테리어
교회건축연구소
대표 권 승 갑 장로(제일장로교회)
033-242-5573 / 018-330-0433
1 OFFICE : 춘천시 퇴계동 891-1 대원B/D 7 F
2 OFFICE : 춘천시 효자3동 607-2
STUDIO : 춘천시 서면 당림 1리 81-5



능력주시는 분은 하나님

강원대 황병호 교수(춘천제일장로교회 장로)와의 시간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빌 4:13)"

이 구절은 황병호 장로가 가장 좋아하는 말씀이다. 이 말씀이 바로 그가 살아온 인생의 간증이기 때문이다.

1. 신앙을 키우던 시절

황 장로는 초등학교 4학년 때 사촌누님의 전도로 교회에 첫발을 내딛게 되었다. 중학교 때까지 홍천에서 신앙생활을 하던 그는 춘천고등학교에 입학하면서 춘천으로 신앙의 터전을 옮기게 된다. 당시 고모님이 춘천제일장로교회에 권사님으로 계셨기에 그는 춘천제일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다. 1962년부터 시작한 춘천제일교회에서의 신앙생활은 장로로 섬기고 있는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다.

그는 고등학교 시절 특별한 모임을 만났다. '광염회'라는 기독교 동아리이다. 광염회는 광염학원이라는 것을 만들어 춘천고, 춘천여고, 성수고, 강원고의 고2들을 모았다. 대부분 각 학교의 모범생들과 교회의 회장 부회장들이었다. 이 모임은 세분 선배들이 학생들에게 비전을 키워주고 리더로 키우자는 생각으로 기도하며 만들었는데 황 장로는 3기로 들어가게 되었다. 당시 고 김연호 목사와 김관수 목사가 말씀으로 지도하였다고 한다. 광염회는 신앙생활과 실력을 강조했다. 반드시 교회에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야 하며, 공부는 하루에 15시간 이상해야 하고, 모든 면에 모범이 되어야 한다. 특히 어떤 곳에 서든 리더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 광염회의 정신이었다. 매일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일일 일선을 해야 했다. 당시 일일 일선을 실천하느라고 연탄리어카를 뒤에서 많이 밀어주었다고 한다. 이들은 개인별 항목표에 매일 스스로 점수표시를 했으며 학원장의 평가를 받았다. 점수가 좋지 못할 때는 단단히 혼이 났다고 한다. 서울 김태복 목사, 카나다의 이병훈 박사, 이원직 선배, 전육사 교수부장 이동훈 교수, 강원대 이칭찬 교수, 한림대 허남순 교수, 장안대 강헌구 교수, 강촌교회 김성호 목사, 광염교회 박인관 목사, mbc의 엄기영 앵커도 이 모임 출신이라고 한다. 이후 광염회원들은 각지로 퍼졌고, 특히 서울에 사는 광염회원들이 광염정신으로 사는 모습이 좋아 보여 감자탕교회 조현삼 목사가 그 정신을 받아들여 광염교회를 세우게 되었다고 한다. 황 장로가 청소년기에 이렇게 훌륭한 신앙과 학업훈련을 받았기에 오늘 현재 위치에 이르게 된 것은 아닐까! 그는 자신의 인생코치로 서슴지 않고 광염회 선배들을 든다.

황 장로는 강원ivf(한국기독학생회) 이사장과 증앙회 이사장을 역임했다. 이렇게 ivf와 인연을 맺게 된 것은 강대 2학년 때, 강원대, 성심여대, 교육대, 간호전문대 학생들과 함께 성경공부를 했던 그는 이 모임의 회장이 되어 성경공부를 이끌었다. 1년이 지난 후 춘천에 ccc는 증앙감리교회에서, ivf는 춘천제일교회에서 모임이 시작되었고, 그는 자연스럽게 ivf에 참여하게 되었다. 당시 ivf에 참여한 사람들은 황 장로를 비롯해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알 수 있는 김병선, 권일현 선교사, 정주벽 목사, 김진현 장로 등이 주축이 되었으며, 후배들로는 남진선 총무, 윤용진 교수, 한철호 목사 등이 있다.

2. 임산공학과 교수가 되기까지

황 장로가 임산공학과 교수가 된 길은 기이하다. 기이한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계획과 능력이 분명하다. 그는 본래 농화학 전공이다. 당시 대학원생이었던 황 장로는 평소 인사성이 밝은 청년이어서 그를 좋게 보던 임산공학과 교수가 한번은 시약을 다루어달라고 부탁했다. 그는 부탁대로 시약을 다루어 주었는데 자신이 화학기호를 잘못 표기한 것을 알게 되었다. 그 즉시 교수에게 달려가서 화학기호를 정정하며 사과했다. 사실 그냥 넘어가도 문제될 것은 없었다고 한다. 이런 그를 좋게 본 교수는 임학과 제자들을 제치고 그에게 임산공학과로 와주기를 부탁하며 평생을 같이 일하자고 프로포즈(?)했다. 황 장로의 지도교수는 임산공학도 중에 화학을 전공한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가 임산화학분야에서 빛을 보게 될 것이라며 적극 추천해주었다. 이것이 황 장로의 인생행로를 바꾸어 임산공학을 하게 된 계기이다.

강원대에서 석사과정을 마친 그는 일본어를 공부하고 두 차례의 도전 후 일본문부성 국비장학생으로 일본 북해도대학으로 유학을 가게 된다. 4년간 유학생활을 하다 보니 고향과 가족이 너무 그리웠던 황 장로는 삿포로 한인교회에 한번도 빠지지 않고 다녔다. 그는 외로움과 그리움을 주님을 의지하는 것으로 이기려고 했던 것이다. 지역이 삿포로 이다보니 엄청나게 쌓인 눈을 치울일이 자주 있었는데 당시 목사님은 눈이 오면 황 장로를 불렀다고 한다. 그는 주보를 만들고 설교를 녹음하는 등 교회사역에 크게 참여했다.

주님을 경외하는 황 장로에게 주님은 유학시절 놀라운 선물을 주셨다. 황 장로의 지도교수는 독일에서 공부한 사람인데 그가 독일에서 공부할 때 독일의 지도교수가 'α-0-4' 라는 구조를 예언했다고 한다. 그런데 그 구조를 바로 황 장로가 찾았다. 세계적인 학자들이 찾고 싶어 하던 구조를 그가 찾아낸 것이다. 전공 원서에 황 장로의 이름이 10번 등장한다고 한다. 그가 찾아낸 구조는 세계적인 학자들이 자신들의 논문에서 자주 인용한다. 황 장로는 이 구조에 대해서 설명할 때면 열정이 솟아나고 제자들은 그런 스승에 대해서 갈채를 보낸다고 한다.

3. 말씀 위에 서는 가정

황 장로가 아내 박명옥 권사를 만난 것은 강대 조교시절. 이대 사대를 나와 문막에서 교사를 하고 있던 아내를 친척소개로 만났다.

황 장로와 박 권사는 자녀들을 신앙으로 키우기 위해 애썼다. 잠자리에 들기 전 온 가족이 모여 성경을 읽고 기도하였고, 많은 대화를 나누었다. 이에 자녀들도 잘 따라주었으며 영적으로 바르게 잘 성장하였다. 한번은 자녀들이 성경을 읽다가 개역성경이 '가라사대'와 같이 즉은 언어인 것 같다고 하자 황 장로는 즉시 현대어로 번역된 성경으로 바꾸었다고 한다. 이런 모습에서 가족 잠자리모임이 부모의 강요가 있는 경직된 모임이 아니었다는 것을 보여준다. 황 장로는 광염회에서 배운 것처럼 자녀들 앞에서 늘 책을 읽는 모습을 보였다고 한다. 자녀들이 자신을 늘 공부하는 아빠로 봐주기를 바라는 마음 때문이다. 이런 교육 때문인지 자녀들은 모두 자신이 부르심을 받은 자리에서 열심히 일하며 공부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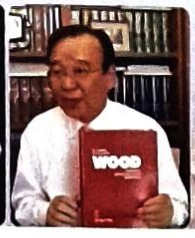
4. 앞으로의 비전

그의 비전은 전공인 임산공학 분야의 교육을 잘 마무리함과 동시에 선교에 크게 비중을 두고 있다. 그는 남은 교수임기가 끝나기 전에 선교학에 대한 책을 쓰려고 한다. 현재 춘천 소재 신학교에서 신교학 강의를 하고 있는 황 장로가 선교학을 공부하게 된 동기는 ivf 이사장으로 사역하면서 신학의 필요를 느꼈다. ivf 활동을 함께 한 옥인교회 김영철 목사와 박상호 담임목사의 적극적인 권유로 그는 총신대학교 선교대학원에서 선교학을 공부하게 되었고(2년반), 그 공부가 너무나 좋고 은혜가 되어 국내에 들어와 있던 루이지애나 침례대학교 신학대학원에서 3년간 더 공부하여 선교학 박사가 되었다.

그는 임산공학과 학생들이 자신이 찾은 구조에 대해서 강의할 때 갈채를 보내는 것보다 신학교에서 신학생들이 선교학 강의에 아멘으로 화답할 때 더 가슴이 뛴다고 한다. 그리고 지신이 강의하면서 먼저 은혜 받는단다. 그런 마음이기에 앞으로의 비전이 선교학 강의로 성도들과 신학생들을 섬기는 것이며, 교회에서 선교 위원장으로서 섬길 일이 많다고 한다. 또한 춘천기독교연합회, 장로연합회, 교수신교회, 기드온, 클리블럼에서의 활동도 기대된다. 귀한 종의 꿈이 이루어질 것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 [취재 권기찬, 사진 김미경]







장뇌삼과 각종 한약재를 첨가한! 웰빙 삼계탕!
웰빙 삼계탕 장 삼 원
귀한 분을 모신다면 장삼원으로 오십시오!
건강을 생각한 혼(魂)이 담긴 삼계탕, 정성을 다하여 모시겠습니다!
◆ 메 뉴
장뇌삼 삼계탕 · 한방 삼계탕 · 닭도리탕 · 한방백숙
※ 대형주차시설 완비
※ 각종모임을 위한 단체 연회석 완비
춘천시 후평동 시내버스 종점에서 소양댐방향 500m지점
예약문의 (033)254-9191 · 9199

JESSI NEW YORK Lemonade 레모네이드
격세기한 아름다운 멋
제시뉴욕 · 레모네이드
레 · 선 · 리 · 더 제 시
모녀가 함께 입는 명품
많은 연예인이 즐겨 입는 명품
제시뉴욕 로열샵
대표 진 순 천
☎ 252-7262
위치 조양동 조흥은행본점 앞

유대인의 교육을 말한다!!

유대인? 그들은 세계에서 가장 인구가 적은 민족이면서도 어떤 힘으로 세계의 중심에 우뚝 서 있는 것일까? 유대인은 왜 똑똑하다는 소리를 듣을까? 그 이유는 바로 '교육'에 있다.

유대인의 탁월한 교육은 세계 0.3%의 인구만으로 30%의 노벨상을 수상하게 만들었다. 아인슈타인, 스피노자, 멘델스존, 프로이드, 키신저, 옵브라이트, 조지 소로스, 스필버그 같은 걸출한 인물들을 배출하였다.

이들 교육은 "왜?"를 다섯 번 이상 물으면서 사물의 본질을 캐내는 교육방법이라고 한다. 학교에서는 시끄러울 정도로 엄청난 질문을 해대는 학생을 높게 평가하고 인정해준다. 그리고 그 바탕에는 가정교육이 자리 잡고 있다.

이스라엘은 최근 의무교육 나이를 만 5세에서 만 3세로 낮추기도 했다.



사실 유대인은 지금의 팔레스타인 사람들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과거엔 불쌍하고 열악한 환경에 있었다. 하지만 2000년 등안 전 세계에서 '벌레' 취급을 당하면서 유대인은 '교육'만은 목숨 바쳐 집중적으로 투자한다. 오늘도 이스라엘의 교육비는 국민 총생산의 10%에 달한다. 전 국토가 적국에 둘러싸여 있으며 1948년 건국 이래 네 차례의 큰 전쟁을 치렀지만 국방비보다 더 많은 교육에 산을 갖고 있다.

이스라엘의 교육은 두 살부터 시작된다. 어린이들의 사회성을 발달시키고 잠재능력을 개발하고 창의적 사고력 증진을 위한 조기교육은 정부 특별 지원금으로 운영되므로 학부모의 부담이 매우 적다.

모든 이스라엘 교육의 근저에는 아브라함 이후 수천 년을 이어온 가정교육이 자리 잡고 있다. 이스라엘의 가정교육은 성경과 탈무드에 바탕을 둔 종교교육과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다. 유대 역사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가정에서 시작하며 유대인의 교육은 이들 선조들의 가정으로부터 시작된다. 부모가 자녀를 어떻게 가르치느냐가 유대인 교육의 튼튼한 기초를 이루어 온 것이다.

탈무드에 보면 부모가 자녀를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에 관한 많은 지침이 들어있다.

- 자녀에게 겁을 주지 마라. 벌을 주든지 용서하든지 하라.
- 어머니들은 모름지기 그의 자녀들에게 토라(모세오경)를 가르쳐야 한다.
- 누구든지 자녀에게 기술이나 직업을 가르쳐 주지 않는 자는 자녀에게 도둑질을 가르치는 자이다.
- 집안에 분노가 있는 것은 과일 안에 부패가 있는 것과 똑같다.
- 자녀를 편애하여서는 절대로 안 된다.
- 아이를 때려야 한다면 구두끈으로 때려라.
- 자녀에게 주지 못할 것을 약속하지 마라. 거짓말을 가르치게 될 것이다.

탈무드는 자녀교육에 대한 보고이며 부모가 자녀를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에 대한 훌륭한 지침이 되어왔다. 부모가 변하지 않고는 자녀의 변화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이스라엘의 교육의 몇 가지 특징을 살펴보자.

1. 부모와 노부모 등 전 세대 간의 격차가 없이 하나가 된다.

유대인들은 세대 간의 격차가 없다. 징통파 유대인들은 3세대가 등일한 철학, 사상 생활방식을 갖고 있다. 유대인들은 AD70년경 로마에 의해 나라를 잃고 디아스포라 시대를 걸쳐 약2000년의 세월이 지난 후 1948년 해방을 맞이했다. 그러나 전 세계의 다양한 유대인들이 각지에서 모였는데 세대차이가 거의 없었다. 이들의 가장 큰 특색은 세대 차이를 극복했다는 것이다. 다양한 경험과 쌓아온 삶의 노하우를 부모와 선조들로부터 전수를 받는데 전혀 문제가 없다.

2. 영재교육에 대한 투자이다.

1973년부터 계획을 수립하여 전국 초, 중, 고교의 영재를 위한 특별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는데 상위1-3%에 속하는 영재들은 엄격한 과정을 거쳐 정부의 검사를 받고 선발된다. 보통은 IQ140 이상을 영재로 규정하지만 창의력 집중력이 뛰어난 학생의 경우 선발되고 학교교과목과는 별개의 내용을 교육받게 된다. 이스라엘정부는 국내외의 영재전문가들을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교육방법을 개발하고 있다.

3. 사회를 위한 봉사훈련이다.

부모로부터 자녀들까지 병원방문 병약자를 돌아보고 노인을 위로하며 무료로 다른 어린이에게 언어를 가르쳐주거나 교도소 방문이나 양로원 방문이 권장된다. 사회봉사단체에서 자원봉사자가 되어 섬겨야 한다. 이러한 봉사를 통해 그들은 사회를 배우거나 사회를 살아가는 법도 알게 되는 것이다.

[편집부 조영천

"성경과 탈무드의 바탕을 둔 철저한 자녀 교육"

예 양

식용 개와 애완 개

식용 개를 기르는 사람들은 기르는 개로 아무리 마음껏 살이 찌게 한다. 식용 개에겐 일체 일도 시키지 않으며 특별한 훈련도 시키지 않는다. 잡 때 고기 근수만 많이 나간다면 어떻게든 살을 찌우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애완 개는 다르다. 가족의 일원으로 취급받으며 몸위 있게 자라기에 이기 위해 지방이 많은 음식은 제한 받으며 가족들의 언어를 가르치기 위해 일정기간 땀을 흘리며 연단의 시간을 보낸다. 그리고 그 다음에서야 비로소 오래 사랑을 받는 것이다. 십자가 없이는 면류관이 없다. 그렇다 어찌 그 사랑하는 자녀에게 아나님의 연단이 없겠는가 이유 없는 시험과 연단은 변장된 축복이요 아나님의 사랑이다.

<후원자를 찾습니다>

농 협 203-02-280238 조남진
조 흥 716-01-001389 조남진
1구좌 5천원, 2구좌 1만원
(성시화를 위한 구독헌금에 동참합시다)

[성시와 후원자 명단]

강촌감리교회	나눔성결교회
남춘천감리교회	늘사랑교회
동신장로교회	순복음춘천교회
순복음하나교회	시암중앙교회
소양성결교회	소양제일성결교회
세인교회	새순성결교회
순복음열린교회	서부감리교회
석사감리교회	온누리장로교회
예광침례교회	주찬양교회
중앙장로교회	춘천일신교회
춘천동부교회	춘천명성교회
춘천북부교회	춘천사랑의교회
춘천중앙감리교회	평화감리교회
춘천제일장로교회	춘천제일감리교회
한빛장로교회	천일현수막
헤비타트춘천지회	앤 두어
쏘인테리어	디티피아
국민임브춘천지사	김 준 언
김 길 홍	김 현 철
김 영 명	민 병 업
박 동 환	성·기 온
신 성 균	신 종 철
안 미 애	안 정 숙
엄 필 남	오 흥 수
이 국 정	이 용 규
이 원 기	이 원 영
이 판 호	이 학 규
이 병 연	장 기 영
정 찬 복	조 은 제
최 경 용	최 상 호
최 치 광	한 희 현
함 병 찬	허 순 영
홍 성 운	홍 순 복





포·토·에·세·이

딸에게



딸아
네가 내 가슴에 오던 날 너의 여린 손을 기억한다
단풍 같은 손은 땀으로 젖어 있었지

네가 내 가슴에 오던 날 너의 불안한 눈망울은 하늘빛을 닮았었다
송아지처럼 맑은 네 눈동자는 겁을 먹고 있었지

네가 내 가슴에 오던 날 너의 더딘 발걸음은 자꾸 걸려 넘어지려했다
내 살던 옛집을 떠나야하는 씁쓸한 마음이 네 걸음을 더디게 했었나보다

세월이 흘러 이제 여대생이 된 너의 여린 손
이제는 어미의 흰머리를 뽑아주는 든든한 손이 되었다

세월이 흘러 세상을 따스하게 바라볼 줄 아는 너의 눈
이제는 어미의 시린 가슴을 혼혼하게 안아주는구나

세월이 흘러 튼실한 너의 두 발걸음
휘청이며 분주한 어미의 길을 동행하는구나

딸아!
사랑하는 내 딸아!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네가 이제는 나의 위로이다
어디서 무엇을 하든 하나님을 신뢰하는 네가 나의 기쁨이다
너의 앞길에 주의 은혜가 넘치기를 기도드린다

헵시바 민성숙 집사(효자감리교회)

행사안내

월드비전

♣ 아동방과후교실 어린이날 파티
1. 일시: 2006년 5월 2일(화)
2. 장소: 종합운동장
3. 내용: 미니올림픽, 전통놀이

♣ 제17회 파란글꽃그림잔치 및 동요부르기대회
1. 일시: 2006년 5월 6일(토)
2. 장소: 어린이회관
3. 참가예상인원: 2,000명
4. 내용: 사생대회, 백일장 및 동요부르기대회

♣ 노인대학 봄소풍
1. 일시: 2006년 5월 11일(목)
2. 장소: 고승도치섬

♣ 가족나들이
1. 일시: 2006년 5월 13일(토)
2. 장소: 용인에버랜드
3. 내용: 복지관 등록가정 일일 가족나들이

♣ 재가어르신 및 노인주간보호센터 나들이
1. 일시: 2006년 5월 16일(화)
2. 장소: 용인에버랜드

♣ 아동방과후교실 야외체험학습
1. 일시: 2006년 5월 26일(금)
2. 장소: 공지천 조각공원
3. 내용: 자전거 하이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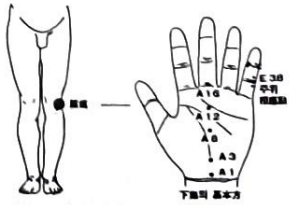
※제13회 어린이 연합찬양축제
1. 일시: 2006년 6월 24일(토) 16:00 - 18:00
2. 장소: 춘천제일장로교회
3. 참가신청서 접수: 3월 31(금)까지
- 성가대 및 찬양대 소개서와 사진(담임목사님, 성가대장, 지휘자, 반주자, 교회를 알릴 수 있는 사진 - 건물 혹은 교인 단체사진)을 함께 제출.
- 참가 교회마다 2곡을 접수하되 곡이 중복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먼저 신청하는 교회에 우선권.

4. 문의: (033)254-7244

건강상식

수지침 응급처치

무릎 관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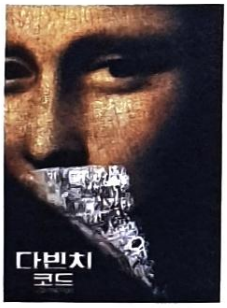


A1, A3, A6, A12, A16과 E38주위를 다침하고 피를 배준다.

사랑의 씨 월드비전 World Vision
· 한사랑(1만원) · 배사랑(2만원) · 늘사랑(3만원)
월드비전 후원계좌 : 농 협 240-01-078120
☎ 254-7244 조 흥 515-01-038052
우체국 10002-01-001322
예금주 월드비전

핫! 이슈

다빈치코드 허구성 알리기 온라인 확산…
한기총, 두란도닷컴과 홈피 개설



영화 '다빈치 코드'의 허구성을 알리기 위한 움직임이 사이버 세상에서도 활발하다.

한국기독교총연합회(대표회장 박종순)는 인터넷 기독교 포털인 두란노닷컴과 공동으로 영화 '다빈치 코드' 홈페이지(davinci-code.or.kr)를 개설했다. 이 홈페이지의 역할은 올바른 진리를 왜곡하고 포장한 영화 '다빈치코드'의 오류를 알리기 위한 것이다. '다빈치 코드의 허와 실'이라는 메뉴를 통해 영화 '다빈치 코드'를 연구,분석한 신학자들의 칼럼이나 관련 기사를 소개하고 있다.

또 한기총은 '다빈치 코드 상영 반대-안 보기 운동'을 확산시키기 위해 홈페이지(www.cck.or.kr)에서 홍보 동영상 및 배너를 무료로 배포한다. 이와 함께 한기총 영화대책특별위원회에서 정리한 '쟁점 질문 5문 5답'의 한글 자료도 내려받을 수 있도록 했다.

한국대학생선교회(대표 박성민 · CCC)도 최근 발간한 '다빈치 코드 메거진' 배포를 위해 국내 유명 사이트에 블로그(www.cyworld.com/DVCproject)를 만들었다. 이 책은 소설과 영화의 허구성을 반박하고 성경의 절대적 우월성을 제시하고 있다. 그리고 CCC는 블로그에 '다빈치 코드 메거진'의 내용을 일부 소개하며 무료 배포 신청을 받고 있다.

미국에서도 이미 영화 '다빈치 코드'의 허구성을 알리기 위해 인터넷을 활용하고 있다. 미가톨릭주교회의(USCCB)는 영화 다빈치 코드 상영에 대비해 웹사이트(www.jesusdecoded.com)를 만들고 16쪽짜리 책자 '예수의 진실'(Authentic Jesus)을 배포했다.

한기총은 "한국 교회와 성도들이 영화 '다빈치 코드'를 통해 유포된 폐해를 인지하고 단지 보지 말 것만 강조할 것이 아니라 비판적 시각을 키워주는 것이 필요하다"며 "목회자들이 이 기독교 사이트들의 내용을 자세히 읽어보고 성도들에게 알리는 노력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GoodNews paper© 국민일보]

사랑을 심는 아가피아 agapia 강원지부

평범한 아이를 인재로 양성하는 아가피아 인재개발학교

독서가 자녀에게 필요한 이유

한국 어머니들은 자녀의 학교 성적이 떨어지면 학원이나 특수 과외를 생각합니다. 그러나 프랑스에서는 아이의 학업 성적이 떨어지면 논술교사에게 아이를 보낸 답니다. 논술교사는 수학의 법칙, 과학의 법칙을 가르치지는 않습니다. 논술교사는 아이에게 "종합력, 상상력, 분석력"이란 지적 창의력을 높여주어 스스로 답을 찾을 수 있도록 하는 지적 능력의 힘을 길러줍니다.

큰 인물이 된 사람들을 보면 공부만 잘 했던 사람들보다 창의력이 뛰어났던 사람이었습니다. 창의력은 남을 설득하고, 기발한 생각, 역전을 이끌어 내는 지혜를 발휘합니다. 세종, 정약용, 에디슨, 빌게이츠 등 창의력으로 성공을 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무조건 책을 많이 읽는다고 창의력이 발달되는 것은 아닙니다. 학생을 사랑하지 않는 교사, 아이의 능력을 인정하지 않는 교사들에 의해, 아이들의 미래를 생각하지 않고 대학 입시만 생각하는 책읽기는 또 하나의 스트레스입니다. 아이들의 미래를 생각하는 교사가 좋은 책, 좋은 영화감상, 말하기, 듣기, 토론, 봉사, 글쓰기 등으로 두뇌개발, 창의력을 개발시킬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 없이는 두뇌개발, 창의력은 꿈도 꾸어서는 안 됩니다. 여기에 믿음과 실력의 극대화를 도와줄 아가피아를 소개합니다.

아가피아 스쿨을 가면 좋은 이유

※ 스스로 공부하는 아이로 만든다.
※ 삶의 목적을 아는 아이로 만든다.
※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아이로 만든다.
※ 미래가 확실한 아이로 만든다.
※ 많은 사람에게 유익한 사람으로 만든다.
※ 학교 공부도 병행할 수 있다.

왜 창의력이 중요한지 아십니까? 공부의 1등은 수만 명입니다. 그러나 창의력은 오직 그 사람만의 지혜이며 "고기 먹는 법이 아니라 고기 잡는 법"이기 때문입니다.

강원 아가피아 스쿨 교장 최 승 만 | 입학대상 : 글을 읽을 줄 아는 아이 ~ 고 1년생까지 | 문 의 처 : 033) 241-9939, 011-9058-3711

♡춘기연 임원단 모임



춘천기독교연합회는 4월 4일 화 오전 7시 춘천중앙장로교회에서 부활절 준비모임을 가졌다. 이날 임원들과 각 분과위원들이 모인 가운데 부활절연합예배의 문화행사 및 순서에 대해 논의하였다.

♡인도 비하르선교사 파송



비하르선교회는 김진만 이보경 선교사(광염교회:담임목사 박인관) 파송예배를 4월 5일(수) 오후7시 효자교회에서 드렸다. 사회 김종호목사(회장), 기도 최상도목사, 성경봉독 권태봉장로, 선교한국총무 한철호선교사가 "이중적 축복"이란 제목으로 설교를, 춘천기독교연합회장 박상호목사가 축사를, 가나안농군학교장 김범일장로가 격려사를, CCF회장 피종호목사의 축도로 파송식을 마쳤다. 예수전도단 간사로 활동하며 광염교회 대학부 사역을 감당했던 김진만 이보경 선교사는 인도가나안농군학교와 교회개척사역을 감당하게 될 것이다.

♡어머니학교 춘천2기 수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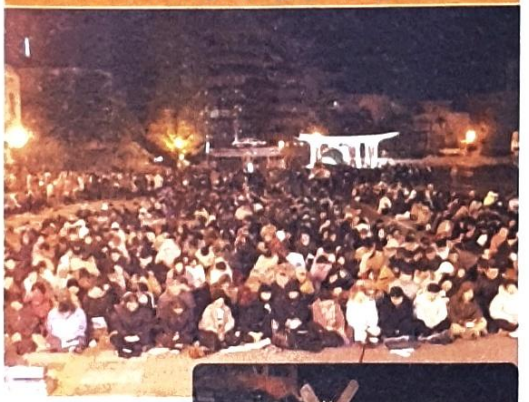
두란노어머니학교 춘천 제2기 수료식이 4월 6일(목) 오전 10시 순복음춘천교회에서 열렸다. 109명의 수료생들이 자녀들을 잘 양육하고 가정을 세우며 '열국의 어머니'로서 교회와 사회를 아름답게 세워나가기를 기대한다.

♡노방전도



에스컴은 4월 27일(목) 오후5시30분 종합운동장에서 모든 기독동아리들이 한 자리에 모여 학원복음화를 위한 노방찬양을 펼쳤다. 약 40여명의 기독동아리 학생들은 춘천시고교연합체육대회가 끝난 후 친양과 응원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지나가는 많은 청소년들에게 예수님을 전하는 시간을 가졌다.

♡ 2006년 부활절 연합예배





춘천기독교연합회는 4월 16일(주일) 오전5시 시청 광장에서 작년과는 달리 1부 십자가행진, 2부 기념예배로 드렸다. 1부에는 회장 박상호목사와 순서자들이 십자가를 짊어지고 시청광장에 입장함으로 예수고통을 피부로 느끼며 부활을 촉하하는 더욱 의미있는 부활절연합예배를 드렸다. 2부 사회는 부회장 최현묵목사, 기도 장로연합회장 박한병장로, 성경봉독 원드비전 이명신관장, 춘천제일장로교회 성가대의 특별찬양에 이어 박상호목사의 부활절 메시지가 전해졌다. 특별기도는 '나라와 민족과 지도자들을 위해' 하기철목사, '교회연합과 춘천성시화를 위해' 조영호목사, '춘천시정의 발전과 상처받은 시민을 위해' 한균목사, '국가안보 및 군선교를 위해' 최부식목사가, 헌금기도 지용찬목사, 축사 허천국회의원, 김창수목사의 축도로 모든 순서를 마쳤다.

♡ 교역자연합회 체육대회





춘천기독교교역자연합회(회장:최현묵목사)는 4월 27일(목) 오전9시 공지천 인조축구장에서 '제4회 체육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체육대회에서는 교단별 축구대회와 레크레이션 등을 통해 교역자들 간의 거리감을 없애고 한마음 이 되어 친목을 다지는 시간을 가졌다. 교역자연합회는 연합예배, 세미나, 교회성장을 위한 정보교환, 기도회, 체육대회 등을 통해 목회 활동과 연합에 활력을 불어넣어주고 있다.

♡강원기독문화 연구소 설립



강원기독문화연구소(소장:김기태)는 4월 10일(월) 오전 11시30분 퇴계동 음식점에서 약 35명의 교계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개원예배를 드렸다. 옥천동에 문을 여는 연구소는 도내 전역의 교세 일람표 제작을 비롯 강원도 기독교 전래 시기와 교회 창립일 조사, 기독문화이해도 측정 기독문화역사조명 기독교문화재사진도록자료정리 등 다채로운 사업을 전개할 계획이다. 소장 김기태 장로는 "기독교가 사회에 끼친 영향과 기독문화가 어떻게 시민의식을 형성하며 접목됐는지의 과정과 실상을 찾아 널리 알리겠다."고 말했다.

♡제3회 올리클럽기도회



춘천성시화를 위한 제3회 올리클럽기도회가 4월 25일(화) 오전7시 온누리장로교회에서 열렸다. 이날 기도회는 사회 부회장 임윤식장로, 기도 부회장 허종구장로, 김창환목사가 "은혜 받은 자의 더 많은 수고"란 제목으로 설교를 하였다. 이어 성시본부사무총장 조영춘목사의 인도로 '춘천성시화, 교육(학원)의 복음화, 행복한 가정회복, 민족복음화와 세계복음화'를 위해 합심하여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 춘천기독교연합회장 박상호목사의 축도로 기도회를 마쳤다. 2부 월례회에서는 제4회 기도회와 창립 10주년기념행사에 대해 협의하였다.

♡기독교대한감리회 남선교회 동부연회



기독교대한감리회 남선교회 동부연회연합회(회장:이호상장로)는 4월 26일(수) 오후5시~9시 석사교회에서 제6차 임원회의 및 순방예배를 드렸다. 회의에서 평신도체육대회와 세계감리교대회 준비기도회, 해외선교개척지선정 등에 대한 안건을 논의하였고, 순방예배는 사회 이영규장로, 기도 이재풍장로, 성경봉독 강희주장로, 손학균목사가 "바나바와 같은 일군(행11:19~30"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다. 본 연합회는 5월 27일(토) 홍천에서 제24회 평신도체육대회를 개최하게 된다.



고서 팝니다

▶묵시록주석

1913년 동양서원간행 편집겸발행자 민준호

▶누가복음쥬석

1910년 죠선에수교회감리회간인

각권당 100만원

연락처 019-9224-0690 | 이영규 목사

"마음의 치유와 성숙은 자신과 상담자, 그리고 주님의 합작품입니다."

한림미술치료센터

■ 센터에서 하는 일
▶ 미술치료사 양성교육 ▶ 각종 심리검사 및 지능검사
▶ 개인 및 그룹 미술치료 상담 ▶ 지역사회 관련기관 지원활동

■ 미술대화 프로그램
▶ 좋은 엄마되기, 좋은 아빠되기, 친밀한 부부되기(자아발견 + 역할교육 + 의사소통)
▶ A.G.T(Art-therapy in the Grace & Truth): 내 안에 있는 하나님 형상 발견하여, 온유하고 겸손한 자아상 형성을 돕는 미술활동

■ 큰나무 방과후 교실: 장애아동의 행복한 즐거운 경험을 위하여!!
▶ 대상: 장애아동(초등학생) + 통합교육을 원하는 일반초등학생
▶ 일시: 월-금요일, 매일 오후 3시 ~ 6시
▶ 내용: 감성놀이, 학습지도, 특별활동(storytelling, play English, 종이공예, 워십, 미술치료), 부모의 내적 에너지 개발과 역할훈련, 장애아동 형제를 위한 미술활동

☎033)263-7572 / 017-373-9273(성복순), 011-9598-1709(김지예) 카페 : cafe.daum.net/dcc
춘천시 퇴계동 969-4, 평화성결교회 2층(퇴계주공1지 정문, 트레인 카페 부근)

사 설



우리의 가정교육은 어디까지 와 있는가?

박 상 호 목사
본보편집장 춘천제일장로교회 담임

5월을 가정의 달이라고 한다. 5월 첫 주일은 어린이 주일, 둘째 주일은 어버이 주일, 그리고는 스승 주일, 부부 주일 등으로 지킨다. 그러나 그 개념은 가정에서 출발되었다.

한남대 김형태 교수의 글에서 어느 외국인의 눈에 비친 한국인의 모습이라는 글을 읽은 적이 있다. ①식당에서 아이들이 뛰어다녀도 말리는 부모 없고 ②결혼식 도중에 휴대폰이 계속 울려도 끄지 않으며 ③회의 중에도 자기끼리만 소곤소곤 하고 ④부부동반 초청회도 남편만 오기 일수고 ⑤걸을 때 남과 부딪히거나 말거나 무신경이며 ⑥금연석 자리에 앉아서 태연 하게 담배를 피우며 ⑦밥을 너무 빨리 먹어 상대방을 긴장시킨다고 한다.

우리는 이 중에 몇 가지에 해당이 되고 있는가? 동방의 예의의 나라라고 불려 지던 우리나라의 모습이 그 같이 변질되었다.

가정의 달을 통해서 가정교육, 학교교육, 그리고 교회 교육의 새 판을 짜 볼 수 있으면 좋겠다. 가족들은 서로 협력하여 ①사랑이 넘치는 행복한 가정을 만들도록 노력하자 ②부모 자신이 먼저 본보기가 되도록 노력하자 ③올바르고 충분한 사랑을 표현하자 ④이웃을 사랑하고 돕는 마음을 일깨우자 ⑤가족은 피차 위대한 꿈과 희망을 심어주자 ⑥가족이 함께 좀 더 많은 시간을 보내자 ⑦가족 간에 개성을 존중하고 살려주자 ⑧자신이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은 돕지 말자 ⑨책임감을 키워주고 책임을 지게하며 자율적으로 행동하게 하자.

가족 간에도 피차 인정하고 격려하는 것이 그리 쉽지는 않다. 가족 간에도 자신의 생각과 다르면 이방인 취급을 하고 무시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다. 상대의 생각도 존중해야 한다. 그가 그렇게 생각하는 데는 그만한 이유가 분명히 있는 것이다.

초등학교 1학년에 입학한 아들녀석이 가지고 온 14점짜리 시험지를 보니 틀린 답 중 하나가 닭의 성장과정 쓰기에서 "계란 - (중닭) - 닭"이라고 해서 틀렸다. "계란 - (병아리) - 닭"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사는 사회의 개념이다. 그 아이에게는 병아리문화는 없고 어른들이 삼계탕 요리 속의 닭을 보고 다 크지도 못한 중 닭이군 한 것을 기억한 것이다. 과연 정답과 틀린 답인가? 정의가 가려지지 않는다. 출제에 잘못이 있다.

화가 난 아빠가 아이에게 "야!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14점이 뭐냐 넌 가문의 수치다. 네가 우리 가문에서 최고로 낮은 점수를 받은 기록자다."라고 하자 아이가 하는 말 "아빠 아니야! 난 이다음에 8점 받는 아돌 낳을 거야." 라고 했다. 더 이상 할 말이 없다. 이것이 변해진 시대의 사상과 모습이다.

꼭 지켜야 할 일은 가족이 성경을 읽고 성경을 배우자. 그 속에 삶의 정도가 있음을 다시 깨닫자. 그리고 가정은 질 높은 행복을 느끼하도록 누리자.

❀ 알려드려요

◆ 예스컴(구 예수사람운동)
1) '목동 모임(중고교 기독동아리 리더모임)'
일시: 5월 13일(토) 오후 6:30 장소: 김선희 간사 자택
2) '예스컵 프레이즈 (청소년연합찬양집회)'
일시: 5월 20일(토) 오후 6:30 장소: 중앙성결교회 소예배실
강사: 이혜진 전도사(서울목동성결교회)
문의: 244-5400/010-9287-5170 [cafe.daum.net/holykids]

◆ 한국대학생선교회(C.C.C.)
1) LTC(전도 제자화 운련)
일시: 5월 8일~11일 오후7시 장소: CCC 아카데미센터
2) 황재국 강원대 지도교수 은퇴예배
일시: 5월 26일(금) 오후7시 장소: CCC 아카데미센터
문의: 254-5776

◆ 예수전도단
1) 춘천 회복을 위한 화요모임
일시: 매주 화요일 오후 6:30 장소: 춘천동부교회 소예배실
대상: 연령, 교단을 초월한 모든 그리스도인
2) 브르스길라(중보기도) 모임
춘천과 예수전도단을 위한 중보기도 모임
시간: 매주 월요일 오후 7시~9시
장소: 춘천지부 사무실(한신아파트 맞은편)
대상: 가정주부(관심있는 자메님)
3) 예수전도단 선교대회 <Open 2006>
*선교대회: 7월 25일~7월 28일 장소: 이집트 카이로
*기도순례 tour: 유형별로 7월 중순~8월 초
*단기선교: 이집트 및 중동, 북아프리카 지역(별도신청) 신청 및 문의: 02) 333-8122~3, 033) 252-1128/www.open2006.org

◆ JDM
1) '전국 TTS수련회'
일시: 5월 12일(금) 오후10시 장소: 금산 대전중앙교회 수양관
2) '가족의 밤(옴커망데이)'
일시: 5월 19일(금) 오후7시 장소: 강원대(예정)
3) '전국 청소년 CCM, CCD경연대회'
일시: 6월 6일(화) 장소: 세계제자훈련원(WDTI)
대상: 중고등학생이면 누구나 문의: 252-3192 /011-9068-3192

◆ IVF
1) '한림대 학사수련회'
일시: 5월 4일(목) ~ 5일(금) 장소: 가평 승동기도원
강사: 이춘태 간사(중앙학사회 총무)
2) '한림대 CHANCE CAMP'
일시: 5월 4일(목) ~ 6일(토) 장소: 가평 승동기도원
3) '강원대 옴커망데이'
일시: 5월 5일(금) 오후12시 장소: 춘천 IVF회관
강사: 이춘태 간사(중앙학사회 총무)
4) '강원대 중간수련회'
일시: 5월 4일(목) ~ 5일(금) 장소: 춘천 IVF회관
5) '전임사역자 모임'
일시: 5월 29일(월) ~ 30일(화) 장소: 미정
문의: 252-5200

◆ 어린이전도협회
1) '새소식반 전도 주간 강습회'
일시: 3월 13일(월) ~ 5월 22일(월) 매주 월요일
오전반 10:00~13:00 / 저녁반 7:00~10:00
장소: 베드로선교센터 5층 주수홉
2) '여름성경학교 강습회'
일시: 6월 5일, 6일, 8일 장소: 미정
문의: 253-1443, 242-8291 [http://cafe.daum.net/cefcfv]

◆ GBT
1) 'GBT춘천지부 정기이사회'
일시: 5월 11일(목) 오전11시
2) 'GMF 국내사역자 모임 및 전국간사모임'
일시: 5월 18일(목)~20일(토) 장소: 경기도 화성시
3) 위클리프스쿨 '선교현장이야기'
강사: 이명영 선교사(동남아 I국) 일시: 5월 22일(월) 저녁 7시
수료식: 5월 29일(월) 저녁 7시 장소: 예담교회
4) 2006 선교한국 '잊혀진 부르심'
춘천지역 참가문의:
252-3927 김대원 간사 011-367-6085[0033@gbt.or.kr]

◆ 세계태권도선교회 '알렐루야시범단 훈련'
일시: 매주 월요일 오후 9시~11시 장소: 경원대태권도체육관
문의: 263-6022, 011-9791-6055

◆ 여호수아워십댄싱선교회 '워십선교훈련'
일시: 매주 월요일 오후 8시~9시 장소: 경원대태권도체육관
문의: 263-6022, 017-374-2440

◆ 춘천장로교 연합체육대회
일시: 5월 5일(금) 오전 9시 30분 장소: 고슴도치섬(위도)
문의: 011-372-6200

◆ 홀리클럽
1) '제4회 기도회'
일시: 5월 26일(금) 오후7:30 장소: 순복음춘천교회
2) '창립 10주년 기념 성시축제'
일시: 6월 9일(금) 장소: 안디옥교회
내용: 성시포럼(오후2시), 성회(오후7시)
문의: 이학규 장로 017-370-4831

◆ 소망에 마을 habiat 주택 기공식
일시: 2005. 5. 9(화) 오후 2시
장소: 춘천시 신북읍 천전리 162- 6번지(상천초교 뒤)
문의: 해비티트춘천지회 254-0009

◆ 캠퍼스 복음축제(EF, Evangel Festival)
일시: 5월 11일 오후7시 장소: 강원대 백령문화관
주최: 기독교수회, 선교단체협의회 문의: 011-9058-3192

◆ 제24회 동부연회 평신도 체육대회
주최: 기독교대한감리회남선 교회 동부연회연합회
일시: 5월 27일(토) 오전10시 장소: 홍천 공설운동장

◆ 청년 포럼
주제: 기독청년의 정치참여 일시: 5월 20일(토) 오후4시
강사: 백종국교수(경상대, 공정연대)
장소: 동부장로교회
대상: 춘천기독교연합회에 속한 지역 교회 청년이면 누구나.
문의: 이병철목사(주향교회) 017-254-3162



"미라클 영어회화 훈련소('인트로단계' 3기모집)"

'영어회화 기적이 일어난다!' '단 한 달 만에 입이 열린다!'
'이미 혼련 수료자들이 입증을 하고 있다'
'반신반의로 왔던 공개설명회 참석자들이 100% 등록한다!'

1. 개강일시: 2006년 6월 19일(월) 오후 6시50분(시간엄수)
2. 기 간: 6월 19일~7월 14일(월화목금 7:00~10:00PM) 1일 3시간씩 1개월(16일간 총 48시간) 학습 및 훈련.
3. 훈련단계 및 교재: '인트로단계' 교재: 「Interchange(intro),-캠브리지 대학 출판사-
4. 장 소: '꿈이있는교회'(교통편: 키플 25번23번,26번 28번버스)
5. 본 훈련소는
①초6년 중 · 고등학생들 ... 침여만 하면 영어컴플렉스 해결! 꿈과 비전을 심어준다.
②영어회화를 공부하다가 더 이상 실력이 늘지 않거나, 어려워서 포기하신 분.
③초등생부터 목사님, 선교사님, 박사님, 영어선생님, 유학준비생, 주부들이 한자리에서!
④출국이 임박한 분, 선교지로 파송될 분, 최 단기간에 영어회화를 정복하고 싶은 분.
⑤영어비법을 통해서 회화뿐만 아니라 영어공부 전반(리스닝,빌음,문법,빠른 독해)에 대해 중요한 기초를 확립할 수 있으므로 초등학교 고학년이나 영어에 자신감을 잃은 중고생 자녀에게도 매우 좋습니다.
6. 훈련등록마감: 6월 14일(수)까지(선착순 42명). ☎ 264-0691,011-386-6239)
7. 공개 설명회: 6월 10일(토) 오후 5시~6시

첫시간 이외에는 청강을 금합니다. 모든 훈련생은 반드시 첫 시간(16일)을 참석해야 하며, 훈련기간 중 이틀을 결석 시에는 다음 단계 훈련생자격이 상실됩니다.

*참조: '춘천중앙감리교회' 홈페이지(http://www.chmchurch.org/main.htm)커뮤니티 자유게시판 「800영어회화」를 참고하세요.

훈련생후기문
"이 프로그램은 결코 꿈수를 가르쳐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지속적인 훈련방법을 체득하여 혼자서도 꾸준히 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드리지요. 하루에 3시간씩 힘치게(?) 악쓰고 나면 발음뿐만 아니라 기본적인 회화의 패턴을 터득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매일 같이 그렇게 하면 실력이 늘지 않을 수 없겠지요? 참고로 저는 '인트로 1기'를 수료한 39세의 박사학위소지자입니다. 정말 영어에 한이 맺혀 배우기 위해 이곳저곳 안가본데가 없지요. 이무모록 현명한 선택하셔서 우연히 찾아온 좋은 기회를 살려보시기 바랍니다."
"학교에서 '리스닝시험' 때 테이프 속도가 너무 느리게 들려요(쉬워요)" -춘여고 1년(2단계까지 훈련자)-
"친척상담에서 내 말을 못 알아듣던 '세군데미국 대학원계자'가 본명히 알아들어요" -미주웨데대학원합격자-
"유창하게는 잘 안되지만 우연히 만난 캐나다 원어민과 1시간여 동안 대화가 돼요. 신기해요" -춘중 2년-
"이젠 원어민 만나도 천천히 이야기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신감이 생겨요" -고졸출신 50대 주부-
"영화가 들려요" "이젠 자신감이 생겨요" "영어가 너무 쉬워요. 이렇게 쉬운 걸 왜 그렇게 어렵게 생각했는지 모르겠어요" "그 어렵게 느껴지던 문법이 쉽게 정리가 되구요. 이제는 분명한 자신감을 가지고 독해를 하고 또한 속도도 아주 빨라졌어요" -초등학생부터 중 · 고생 50대 주부까지 등 다수-

- 꿈이 있는 선교 언어 훈련원 -